

장학월보

2010
제211호(통권430호)

9

- 장학특집 / 꿈을 키우는 진로·직업교육
- 교육위원과의 대담 / 조재규위원장
- 건강상식 / 여성의 건강관리



2010년 전국체육대회가 경상남도에서 열립니다

2010.10.6(수) ~ 10.12(화)

경상남도 전 시·군(주개최지:진주시)

- 참가인원 선수·임원 25,000여명(16개 시도, 이북5도, 해외동포)
- 경기종목 41개 정식종목, 3개 시범종목(63개 경기장)

기본방향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
양태안시대를 선도하는 경남의 전국화 실현”



개회의의

- 21C 남아시아시대를 주도하는 경남을 적극홍보
- 다양한 축제와 병행한 문화예술공연 이미지 제고
- 전시·군 분산개회를 통한 한 도민 참여유도
- 진주혁신도시내 주경기장 건립으로 8~4지 확대

→ 생산유발 4,798억원 부가가치유발 2,738억원 고용창출 6,416명

대회구호

하나되어 다시뛰자,
경남에서 세계로!

대회표어

- 화합체전 힘아나요 문화체전 신아나요
- 경남에서 맞잡은손 하나되는 대한민국
- 체전준비 내일처럼 손님맞이 가족처럼
- 앞물살을 경계체전 오순도순 화합체전
- 녹색성장 푸른경남 국력증진 화합체전

대회엠블럼



대회마스코트



시·군별 경기장 배치도

전 시·군 63개 경기장

진 주 시 개별시내진주종합경기장

- 육 상 진주종합경기장 (미래동, 경보-진주시일원)
- 축 구 진주종합경기장 (진주스포츠파크축구장)
- 테 니 스 진주남가람체육공원테니스장, 오막테니스장
- 배 구 동명고체육관, 진주실내체육관, 신명고체육관
- 복 상 진주학생체육관, 경상대학교체육관
- 씨 롱 진주시생활체육관
- 연 상 진주스포츠파크체육관
- 조 형 남강초종합경기장
- 인라인롤러 진주종합경기장 인라인경기장
- 소 프 트 볼 연암군대야구장

김 해 시

- 사 이 글 김해MTB경기장
- 레 슐 링 김해체육관
- 하 키 김해하키경기장
- 볼 링 파크볼링장
- 카 누 김해카누경기장



창 원 시

- 수 영, 수 중 창원종합수영수영장
- 현 드 볼 창원체육관
- 사 이 글 창원공룡장
- 사 각 창원종합사격장
- 볼 링 창원용호볼링장, 대신세기볼링장
- 근 대 5 종 북원사각, 육상: 대원레포츠공원운동장, 태권: 능우론종합체육관, 수영: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수영장
- 골 프 창원컨트리클럽
- 댄 스 스포 츠 무덕초등학교체육관
- 달 구 창원전원대학체육관
- 야 구 마산야구장, 진해공성운동장야구장
- 체 조 기제체조(마산체육관), 리듬체조(안다(여중체육관), 해어리체조(내서중체육관)
- 력 비 진해공성운동장
- 유 도 진해시민회관체육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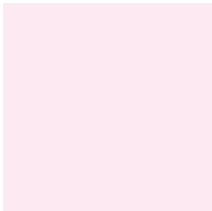
다 시

- 승마: 광주 영주승마장
- 근 거중승마: 신안 국군체육부대
- * 시범경기종목: 달구, 댄스스포츠, 신력

장학월보

THE GYEONGNAM SUPERVISORY BULLETIN

2010. 9 제211호(통권 430호)



02 권두언

-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하는 교육”
희망경남교육의 새로운 도약 / 고영진

04 교육감 동정

05 장학현장

06 장학 칼럼

- 경남교육에 부는 새바람과 교직원의 자세 / 임성택

08 교육위원과의 대담

- 조재규 경상남도 교육위원과의 대담 / 편집위원

11 특집 /

꿈을 키우는 진로·직업교육

- 농촌 소규모학교의 직업교육을 통한 취업의식 함양 / 이경애
- 다양한 진로체험활동을 통한 진로의사 결정능력 신장 / 김병재
- 꿈을 찾아가는 교과통합 진로교육 / 안영희
- 서로 다르게 으뜸이 되는 우암 어린이 / 박외호
- 김해동광초 농구부, 제39회 전국소체 금메달 / 정명진

23 전문가 초대석

- 건강상식 - 암이 아닌 혹은 그냥 두면 되나요? / 장석원

26 수업기술 나누기

- ‘창의적 말놀이’ 활동으로 자기 표현능력을 신장시켜요 / 성경은
- 소설 번조를 통한 창의력 향상 / 류재홍

31 교육정보

- 교무업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경남교육 / 정운영

35 이색 교육현장

- RAINBOW 북정 꿈빛 교육 실현 / 임인철
- 얼굴과 전통은 다르지만 마음은 하나 / 오재호
- 다 함께 소통하는 다문화교육 / 양순구
-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 김태욱

46 참여마당

- 교 원 - 아름다운 도전, 그 이상의 가치를 바라보며 / 김수경
- 학 생 - 청와대 푸른기저단으로 정목호 승선체험을 다녀와서 / 박준혁

51 향기나는 서가

- 정의란 무엇인가? / 김미숙

53 음악이야기

- 엔니오 모리코네의 ‘Nella Fantasia’ / 김정민

55 지상갤러리

- 정원 / 이외선

▶ 표지사진 - 박재철(함안 중앙초등학교)

장학월보는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 전문지로서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소망합니다.

• 10월호 모집 기간 : 2010년 9월 28일까지 • 모집내용 : 이색교육현장, 참여마당(시, 수필, 독후감 등), 독자후기 등 • 분량 : A4 1~4매 내의
※ 보내실 곳 : 641-719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과정기획과(초등장학담당) 장학월보 담당자 앞 <http://lms.gnedu.net>-장학월보커뮤니티

2010년 9월 1일 발행

• 발행인 : 경상남도교육감 고영진 • 총괄 : 교육과정기획과장 정경훈 • 기획 : 초등장학담당장학관 강대룡 • 편집주간 : 교육과정기획과 장학사 김정희
• 편집위원 : 한영자, 박재철, 구현숙, 윤수영, 김민주 • 인쇄 : 문성인쇄사 (055) 282-9922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하는 교육” 희망경남교육의 새로운 도약

희망·으뜸교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육가족 여러분!
올해는 유난히도 길고 무더운 여름을 보냈습니다.

자연의 흐름 앞에 찾아오는 선선한 바람과 함께 교육현장에도 신학기가
시작 되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2학기에는 습관화된 학습지도나 생활지도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서서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육본질에 충실하며 학생들의 실력을 기르는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갑시다.

새로운 시작과 함께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교육중심지로서의 경남의
위상을 높이고자 경남교육이 추구해야 할 교육적 지향점인 교육지표와
비전을 설정하였습니다.

경남교육의 지표로는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 육성” 으로
정하여 미래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의 자아실현을 돕고 국가발전과 함께
세계인의 공동번영에 기여하는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경남교육을 실현
하고자 합니다.

경남교육 비전으로는 “꿈을 키우는 학생 함께하는 교육”으로 학생들이

생동감 넘치는 교육환경에서 미래를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하며, 교육공동체의 협조와 동참 속에 교육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새로이 설정된 경남교육지표와 비전은 우리 교육현장이 배우는 기쁨과 가르치는 즐거움으로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교사들은 헌신과 봉사,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교수력을,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사회는 교사의 권위를 존중할 줄 아는 풍토가 조성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개편도 단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지역교육청이 교육현장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을 인식하고 단위학교는 물론 교육수요자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명칭을 교육지원청으로 바꾸고 학부모의 교육 참여를 유도하며, 학생의 복지 증진과 교육현장의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조성 등 교육행정 서비스 역할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개편은 경남교육발전은 물론 궁극적으로 국가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가 학교현장에도 파급되어 신학기에는 더욱 더 교육 본질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매진해야겠습니다.

학생들의 잠재적 능력을 발굴하고 육성시켜 “누구나 1등 되는 으뜸 경남교육”을 위해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창조적인 과정이 이루어지는 곳이 우리의 교육현장이 되도록 노력 해야겠습니다.

경남교육의 알찬 결실을 위하여,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하는 교육”을 목표로 새로운 2학기를 교육가족 모두의 화합과 참여로 활기차게 시작 합시다.

2010. 9.

경상남도교육감





01



02



04



03



05



06

- 01 이주호 과학기술부장관 본청 방문 환담
- 02 중앙아프리카 Saint Paul학교 돕기 성금 전달
- 03 장애인 관련 단체와의 면담
- 04 일본야마구치현 고교생 스포츠 교류단 방문
- 05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 선수 격려
- 06 거제공고 교원과의 간담회



07



08



10



09



11

- 07 김해교육지원청 - 초·중등 공동사업 문화체험
- 08 경상남도유아교육원 - 전통문화현수
- 09 산청교육지원청 - 커리어 코치 활용 진로교육
- 10 창원교육지원청 - 학습지도연구대회 개최
- 11 창원교육지원청 - 과학실험안전연수
- 12 함안교육지원청 - 내고장 문화답사



12

경남교육에 부는 새바람과 교직원의 자세



임 성 택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국장

제15대 고영진 경남교육감이 취임하셨다. ‘1등 경남교육 찾기’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이 공약에 의해 당선되신 분이라 경남교육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예상은 했었지만, 그 변화의 바람은 예상보다 훨씬 더 넓고 깊다.

경남교육의 새바람은 교육중심, 학생중심의 학교를 만드는 일에서 시작된다. 이것을 잘 설명해주는 것이 ‘꿈을 키우는 학교’라는 교육비전이다.

우리의 학교가 학생들의 꿈을 키우는 배움터가 되지 못하면 학교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꿈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웃 어른을 공경할 것인가? 꿈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배려하고 섬기는 삶을 살 것이며, 꿈이 없는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꿈이 없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문제의 본질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사건인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 교육의 근본은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에 있다고 하는 것이다.

교육이 학생들의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을 위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이라고 한다면, 학교는 당연히 학생 한 명 한 명의 소질과 적성을 살려주고 키워주는 전문적인 교육활동을 실천하여 칭찬과 인정의 경험을 맛보게 함으로써 긍정적 자아를 형성하는 돌봄과 배움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이것이 꿈을 키우는 교육이 지향하는 학교의 모습인 것이다. 그러므로 꿈을 키우는 학교를 만들려면 학교는 당연히 교육 중심의 경영을 해야 하고,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고영진 교육감님의 새로운 경남교육비전인 ‘꿈을 키우는 학교’는 한국 교육의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의 결과이며, 학교 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뜨거운 성찰과 의지의 강렬한 표명이라고 평가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꿈을 키우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사는 수업의 전문가가 될 것을 촉구하고, 독서교육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것이나, 다양한 분야의 영재를 키우는 교육에 힘써야 한다는 지시는 교육 관계자와 학부모에게는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장애학생과 소외 계층의 자녀를 위한 따뜻한 배려와 교육자적인 헌신을 촉구하는 모습에서 경남 교육의 희망을 보는 것이다.

이제는 교직원이 변해야 한다. 교육은 봉사라는 교육감님의 철학과, 책무를 다하지 않는 공직자는 더 이상 학생과 학부모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준엄한 지적을 명심하고 교육의 전문성을 다하여 교육 중심의 행정, 학생 중심의 교육활동으로 꿈을 키우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경남교육의 새바람이 한국교육을 선도해가기를 도민과 학부모가 기대하고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조·재·규 경상남도 교육의원과의 대담

조 재 규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장

▶ 편집위원

안녕하십니까? 먼저 경상남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장으로 취임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번 교육위원회의 역할과 향후 활동 및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삼스럽게 도의회 원구성에 어려웠던 일들이 생각나네요. 특히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교육의원이 맡아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도 전국 16개 시도의회 중 절반 정도는 정당출신 의원이 차지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위원회의 역할은 집행기관인 교육감을 견제하고 감시 감독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예·결산과 각종 조례안 심의 의결,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등의 일을 주로 합니다.

금번 교육위원회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라 정당 출신의 도의원 4명과 교육경력을 가진 무소속의 교육의원 5명으로 구성되어 종전과는 활동내용과 방향이 많이 다를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교육 학예에 관한 사항을 교육자치제도인 교육위원회와 지방자치제도인 도의회 교육사회심사위원회에서 이중으로 심의하여 불필요한 절차와 시간적 낭비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이 교육현안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의회는 견제기구라 해서 집행기관에 대한 책임 추궁만 하고 책임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집행부보다 더 노력하여 경남 교육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위원

회 의원들뿐만 아니라 타 상임위원회 의원과 함께 경남교육발전 연구회를 결성하여 교육현안을 연구하고 토론하여 대안을 마련할 것이며, 경남도민의 입장에서 의회 내에서 교육문제를 풀어 나가겠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경남교육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 **편집위원 :**

경상남도 교육위원회가 폐원되고 경상남도의회 상임위원회로서의 교육위원회가 시작되었는데 이로 인한 교육자치 실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없지 않습니다.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향후 과제들이 무엇이 있을지요?

▶ **위원장 :**

지금까지 20년 동안 교육감 제도와 함께 지방교육자치의 한 축을 담당한 독립된 의결기구로서의 교육위원회제도가 폐지되고 도의회의 일개 상임위원회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무소속의 교육의원과 정당소속을 가진 도의원과 혼합 구성되어 교육의원의 수적인 열세로 독자적 발의권도 갖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육에 대한 정책은 정과 간의 이해 다툼이나 정치적 판단에 의해 좌지우지 될 것으로 예견되는 바 교육가족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걱정스럽고 유감스럽습니다.

현재의 지방교육자치법은 불과 6개월 전 정치권에서 시간에 쫓겨 임시로 만든 법으로 교육자치를 말살시키고자 하는 정치권의 의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전국의 교육의원들은 지난달에 한국교육의원협의회를 결성하여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독립형 의결기구화나 아니면 최소한 시도의회에서 교육의원들로만 구성되는 특별상임위원회를 목표로 법률개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과 정당들을 교육가족 모두의 이름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며 법 개정을 통하여 진정한 교육자치가 성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교육가족 모두가 이 일이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 **편집위원 :**

지난 교육의원 선거에서 내세운 공약이 무엇이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요?

▶ **위원장 :**

저는 크게 3가지 영역에서 12가지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친환경 무상급식과 예체능교육의 정상화, 안전하고 편안한 학교 조성을 약속하였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의 실현을 위해서 지난해 도청과 교육청의 결산 보고서를 내면서 공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이 공약이 보고서대로 실현될 것 같습니다. 원래 저의 공약 실천방안으로는 무상급식을 위해 인건비와 시설비는 도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식비는 도청과 시군에서 50 : 50으로 부담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미 교육감과 도지사의 협의에 의해서 교육청과 도청, 시군에서 각각 30 : 30 : 40으로 식비 부담을 하

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급식을 위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기 내에 실현되리라 봅니다.

선생님과는 안정적인 인사이동과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 교육업무 경감과 교원의 전문성 확립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학부모와는 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학습준비물 무상 제공, 유아교육의 질과 수준 향상, 학력과 진로에 대한 관리 시스템 운영을 약속하였습니다.

임기 내에 이러한 약속을 실천하도록 하나하나 착실히 챙기겠습니다.

▶ 편집위원 :

투명하고 신뢰로운 경남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가족 및 도민과의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를 위한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 위원장 :

그 동안 선배 교육자들이 헌신적인 봉사와 사랑으로 국가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오셨는데 최근 몇몇 교육자의 잘못된 행실과 조령모개식의 교육정책으로 인해 교육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는 교육자와 교육정책에 대한 작은 실수에 대해서도 에누리 없이 냉정합니다. 이러한 것은 교육이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대와 현실을 직시하고 교직을 천직으로 삼아 각고의 노력과 희생으로 보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의 아름다운 성장과 건강한 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이 보답으로 돌아오리라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육자도 사람이므로 무한한 희생만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법과 제도를 만드는 정치권과 국가에서는 교육자들이 안심하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정책과 제도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며, 정부와 교육감에게도 노력하도록 독려할 것입니다.

▶ 편집위원 :

마지막으로 교육가족에게 하고 싶거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 위원장 :

교육위원회는 교육의 주체인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은 물론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은 누구나 자신의 의사를 밝히고 교육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관료주의적 통제를 배제하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존중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들의 정치적인 발판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경남교육이 잘못 가고 있으면 교육청에게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의원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만 합니다. 의원은 주민이 뽑은 대표이므로 의원들에게 책임만 물을 것이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와 지혜도 주시면 더더욱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위원회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일을 더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 소규모학교의 직업교육을 통한 취업의식 함양



이 경 애
거창 가조익천고등학교 교사

1. 들어가며

최근 전문계 고등학교는 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이에 따른 직업 세계의 변화, 국민 소득수준 향상과 핵가족화로 인한 고등교육의 욕구증대, 학령인구의 감소 추세 등 사회의 제반 여건 변화로 인하여 산업체와 학부모, 학생들로부터 차츰 외면당함에 따라 정체성마저 심각하게 위협당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런 사회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최근에는 전문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대부분의 학생들도 대학진학을 희망하며 학교에서의 직업교육을 가급적 피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전문계 고등학교의 어려움도 한층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는 도시의 대규모 전문계 학교보다 본교와 같은 소규모농촌학교에서 더욱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다양한 직업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장차 사회에 진출하여 자신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여 당당한 사회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계고등학교로서의 정체성을 찾게 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 이와 같은 취지로 본교에서는 다양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여 학생들의 취업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게 되었다.

2. 운영대상 및 기간

- 대상 : 가조익천고등학교 정보처리과 1, 2, 3학년 총 74명
- 기간 : 2010. 3. 1~2011. 2. 28 (1년간)

3. 운영과제 설정

가. 운영과제<1> : 직업교육 내실화를 위한 여건과 환경 조성

- 진로적성 검사 및 상담을 통한 진로의식 함양
- 통합진로교육을 위한 교과별 교수·학습 자료 개발
- 직업교육 활동에 대한 연수 및 홍보

나. 운영과제<2> : 다양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진로선택능력 향상

- 청소년 직업체험프로그램(Job Shool) 운영
-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하여 직업탐색 프로그램 운영
 - ‘나의 꿈을 찾아서’ 직업 특강
 - ‘내 유형에 맞는’ 직업 체험학습
 - ‘학부모와 함께하는’ 직업 체험
- 자격증 취득 지도

다. 운영과제<3> :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취업대비능력 향상

- 산학협력협약 체결을 통한 현장체험학습
-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4. 맺으며

‘농촌 소규모학교에서 다양한 직업교육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취업의식 함양’을 주제로 한 본교의 시범학교 운영은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체계적인 직업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소질, 적성,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직무능력과 직업윤리를 갖추도록 하여 취업의식을 함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각종 직업체험학습과 우수기능인 특강과 산업체 탐방 현장학습 프로그램 등은 학생들의 직업세계에 대한 인식과 자기 주도적 직업선택능력을 향상시켰다. 또한, 지역사회 및 지자체 협력 인프라를 구축하여 학교 및 지역사회의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학교가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성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취업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기를 수 있고, 공교육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 기대된다.



<잡스쿨>



<직업 특강>



<취업지원 모의 면접>

다양한 진로체험활동을 통한 진로 의사 결정능력 신장



김 병 재
진주 대곡고등학교교사

1. 들어가며

청소년기에 이루어지는 진로교육은 평생교육차원에서 자신의 삶과 일을 연계하여 조망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가 충분하게 그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진로를 선택하고 그에 대처하는 능력과 소질, 태도, 가치관을 계획적으로 신장시켜 나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학교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다양한 체험활동이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현재 일선학교에서는 체계적인 진로교육의 미흡, 상급학교 진학위주의 교육, 교과 진로지도 자료 부족, 심리 및 적성검사 위주의 진로교육, 급격한 직업세계의 변화에 뒤처지는 교육 등으로 학생들의 진로개발능력을 키우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학생들에게 진로선택의 가능성을 폭넓게 인식시키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진로계획을 세우고 준비해 나가도록 하는 통합된 교육을 제공할 수 있기 위한 목적이 본 연구학교의 운영 과제이다.

2.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방과 후 특기적성반 운영

매주 수요일 방과 후 2시간을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하여 학생 개개인의 소질을 개발하도록 하였으며 부서로는 한지공예반, 도예반, 켈트반, POP·풍선아트반, 보컬밴드반, 제과제빵반, 네일아트반, 영어퍼즐반, 배드민턴반, 일어회화반, NIE반을 운영하고 있다.

나. 대학 및 생활현장과 연계한 진로특강

1학기과 2학기과 나누어 진로특강을 실시하고 있는데, 1학기에는 홀랜드 진로적성검사결과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두 가지 유형(S, A형과 R, I, E, C형)으로 나누어 28강좌의 초청특강을 실시하였고 초빙강사는 경남 도내 대학과의 협조를 통하여 해당학과 교수를 초빙하여 해당학과에 대한 다양한 직업세계를 이해하게 하였고 진학지도에도 도움이 되게 하였다.

2학기에는 생활현장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자영업자를 초청하여 특강을 추진 중에 있다.

다. 대학에서의 체험활동 및 기업체 방문

해당대학에 학생이 참석하여 3회의 체험활동을 실시하였고, 봄소풍 행사시에 광양제철소를 방문하여 생산현장을 견학하였다.

라. 도교육청 주관 체험활동 참여

2학기에도 교육청 주관으로 실시하는 체험학습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다양한 직업세계를 경험할 예정이다.

마. MBTI성격검사 실시 및 집단상담

MBTI성격검사를 실시한 후 집단 상담을 통하여 자신의 성격을 알고 이를 기반으로 장래희망직업에 대한 연관성도 생각하게 하였다.

바. 교과통합진로지도안 작성 및 활용

각 교과수업시간에 교과내용과 관련된 직업을 영상매체(CD, EBS교육방송)를 통하여 소개하였고, 교사들은 교과통합진로지도안을 작성하여 학기별 2회씩의 수업공개를 실시할 예정이다.

3. 맺는 말

그냥 막연하게 ‘OO대학 OO과를 진학할 것이다’, ‘OO와 관련된 자영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세계 소개와 체험활동을 통하여 해당직업을 이해하게 하고, 무조건 자기 성적에 맞추어 진학하려는 생각에서 벗어나 자신의 꿈을 키울 수 있는 합리적인 진로 의사 결정능력이 신장되리라 본다.



〈특기적성(도예반)〉



〈초청특강〉



〈체험활동(원예조경)〉



〈공개수업〉

꿈을 찾아가는 교과통합 진로교육



안 영 희

김해 진영여자중학교 교사

1. 진로교육의 필요성

교과통합 진로교육이란, 현재 학교 교육과정상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과(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와 진로교육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과와 통합된 형태로 제시되는 진로교육은 그 목적이 단순히 진로교육을 위하여 교과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두 교과가 유기적으로 통합되는 과정을 통하여 교과 교육과 진로교육의 효과를 동시에 극대화하는데 있다. 현재 학교현장에서의 진로교육은 분산되고, 선택적·주변적 활동으로 간주된 경향이 있어 이러한 방식으로는 변화하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의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은 교과 내용과 교과 지도 속에 진로교육을 연결하여 교과와 밀접하게 관련을 맺으며 통합적으로 운영될 때에 교육적 효과가 매우 크다고 보고 있다.

2. 교과통합 진로교육의 운영

가. 교과통합 진로교육 실시

각 교과별로 연간 시수의 10~20% 내에서 교과통합 진로교육 교수·학습과정안을 작성하여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교과통합 진로교육 교수·학습과정안은 통합교육목표, 관련 진로 개발 역량, 진로교육 관련 지도 내용, 성취 기준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였다.

교과통합 진로교육은

첫 번째, 교과를 분석하여 진로교육 요소를 추출한다.

두 번째, 교과통합 진로교육 교수·학습과정안을 작성한다.

세 번째, 해당 교과지도를 통하여 진로에 대한 역할 탐색, 특정 직업에 대한 탐색 활동으로 학생들의 진로발달을 조장하고 교과와 직업을 연계하여 지도하는 단계로 실시하고 있다.

〈교과통합 진로교육 수업〉



나. 창의적 재량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에 학년별 협의회를 통하여 10시간의 단계별 진로교육 프로그램 활동자료를 제작하여 운영하였으며, 학생들은 활동 결과물을 토대로 My Career File을 작성하였다.

차시	영역	내용	차시	영역	내용
1	자기 이해	출발 내 꿈을 찾아-나는 누구인가	6	직업 탐색	직업 가치 탐색
2	자기 이해	나의 행복 지수	7	직업 탐색	직업 게임
3	자기 이해	나의 특기와 장점	8	직업 탐색	선택!! My Job
4	자기 이해	성격 파악하기	9	진로 계획	솔로몬의 선택
5	직업 탐색	내 꿈은 어떤 모습일까	10	진로 계획	꿈은 이루어진다.

다. 진로 행사와 진로 현장 체험학습

김해 종합 고용지원센터의 직업진로 체험 프로그램 및 밀양영화학교 체험, 환경관련 진로 체험 등의 현장체험학습활동을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다양한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였다.

〈진로 현장 체험학습〉



〈밀양영화학교 체험〉



〈직업 진로 체험〉



〈환경관련 진로 체험〉

진로 행사 활동으로 부모·친척·친지 일터 탐방하기, 나의 꿈 프로젝트 설계하기, 미래 내 모습 그리기, 직업 설명회, 20년 후 나의 하루 일과쓰기 등을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진로 탐색 행사〉



〈직업설명회〉



〈미래 내모습 그리기〉



〈미래 내모습 그리기 우수작〉

이와 같은 활동으로 직업과 진로에 대한 이해와 탐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자신의 진로계획 설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학생들의 진로 의사 결정능력이 향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서로 다르게 으뜸이 되는 우암 어린이



박 외 호
창원 우암초등학교 교감

1. 들어가며

창원우암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커서 무엇이 되고 싶느냐고 꿈을 물어보면 모두 주저함 없이 자신의 꿈을 당당하게 이야기한다. ‘큰 꿈을 갖고 남과 더불어 살며 서로 다르게 으뜸이 되는 우암 어린이’의 바라는 인간상 아래 우암 어린이들은 꿈을 가지고, 꿈을 키우고, 꿈을 다듬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우암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진로 활동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2. 진로 교육 활동

가. 교과 진로 통합교육을 통한 수업 전개

본교 교사들은 ‘꿈 드림’이란 제목으로 교과진로 통합교육에 대해 고민한 결과를 항상 공개수업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각 교과의 진로교육의 요소를 추출하여 교과와 진로교육 요소를 통합한 수업을 실시하여 학생들은 교과서 속의 다양한 분야와 요소를 자신의 진로와 관련지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고 있다. 지도안 속에 적용한 예가 다음 <표>와 같다. 또 개인별로 꿈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재량 시간에 자신들의 생각을 꾸준히 기록하면서 꿈을 키워가고 있다. 훗날 학생들은 포트폴리오를 다시 보면서 자신의 꿈이 어떻게 변화해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국어교과 지도안에 적용한 예

문제 해결	생활 속 외래어, 외국어를 고유어로 바꾸기	〈활동 2〉 나의 꿈을 고유어로		10'	○ 학습지
		▶ 모둠별로 생활 속 외래어, 외국어를 고유어로 바꾸는 활동 제시	▷ 모둠별로 토의하여 5가지 중에 한 가지 주제를 선택하여 고유어로 바꾸기		
		〈필수 1〉 나의 꿈을 고유어로 바꾸기 〈선택 1〉 영화 이름을 바꾸기 〈선택 2〉 바보상자 속 이름 바꾸기 〈선택 3〉 과자 이름 바꾸기 〈선택 4〉 가수 이름 바꾸기 〈선택 5〉 노래 제목 바꾸기			
		▶ 바꾼 고유어 발표 안내하기	▷ 고유어 발표하기		● 토의 주제는 모둠별로 추천을 통해 선택하도록 한다.

나. 어린이들의 꿈에 맞춘 방과후학교 운영

어린이들의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자신의 진로와 관련되는 능력을 인식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도시에 비해 문화적 혜택이 부족한 농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및 창원교육청의 지원으로 어린이들의 희망에 맞추어 전액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방과후학교는 댄스스포츠, 사물놀이, 바이올린, 그리기, 영어회화, 연극, 영화미디어, 애니메이션, 컴퓨터, 논술교실 등이 있으며 실제로 본교 학생들은 사물놀이 경연대회 최우수, 컴퓨터 한글 및 PPT 자격증 다수 취득, 한자급수 자격증 다수 취득, 우수 영상물 제작 및 다양한 대회 참여의 경험이 있으며 학년말 방과후학교 발표회를 통해 끼를 맘껏 발산하고 있다.

다. 진로 상담활동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며 의사소통을 통하여 타인의 역할과 가치를 인식하기 위해 본교는 학생상담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학급별로 진로 집단 상담을 학기 중에 주 1회, 방학 중에 10회 실시하였다. 학생 생활 상담, 학생 진로 지도 등을 통해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도우며 진로 인식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라. 한자리 꿈 이야기 나누기

매월 첫째 주 토요일 4교시는 본교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꿈을 공유하는 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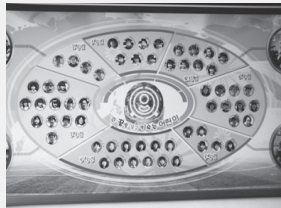
리 꿈 이야기가 열리는 날이다. 전교생의 꿈을 기준으로 모듬을 구성하여 직업과 관련된 적성과 지금 해야 할 노력들에 대한 마인드맵을 해보기도 하고, 자신이 존경하는 인물에 대해 조사를 하여 발표를 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꿈과 관련된 끼를 맘껏 발산하는 ‘꿈 발표대회’를 열기도 하는 시간이다. 2학기에도 자기를 이해하고, 일과 직업의 세계를 이해하고, 다양한 관계 속에서 의사를 결정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자 한다.

3. 맺으며

세계화, 정보화, 지식화 시대에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자신의 직업세계를 인식하고 준비하는 활동이 필요한데 이러한 활동을 바로 진로교육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진로 성숙도의 향상에 따라 학생들의 자기 효능감도 높아질 것이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진로 인식에 도움이 될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강구하여 실천하고자 한다.



〈한자리 꿈 이야기 활동〉



〈전교생 꿈 자람판〉



〈항시공개수업 장면〉



김해동광초 농구부, 제39회 전국소체 금메달



정 명 진
김해동광초등학교

최강 전력을 자랑하는 김해동광초등학교(교장 서성호) 농구부가 제39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남초 농구에서 영광의 금메달을 차지하였다.

김해동광초등학교 농구부는 올 5월초 KBL어린이농구큰잔치 우승과 7월 전국종별농구선수권에 이어 2010년 8월10일 부터 8월16일까지 대전여상체육관에서 개최된 ‘제39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농구남초부 결승전에서 또 다시 전국대회 우승을 차지함으로써 3관왕의 명예를 차지하며 명실상부한 농구명문초등학교로서의 명성을 널리 퍼뜨렸다.

전국 16개 시도 대표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김해동광초등학교는 경남대표로 참가하여 16강전에서 제주선발팀을, 8강전에서는 전북대표팀인 전주송천초등학교를 차례로 물리치며 4강전에 진출하였다. 4강전에서 도교육청, 김해교육청, 경남농구협회 임원 등이 총출동하여 응원한 끝에 서울대표인 서울연가초등학교를 맞이하여 시종 고전하고 역전에 역전을 거듭한 끝에 49대 46으로 3점, 차이로 누르고 결승에 진출하였다. 작년 소체 결승전에서 패배의 눈물을 안겨준 서울 대표팀에 대한 통쾌한 KO승을 거둔 셈이었다. 결승전에서는 올해 5월초 KBL 총재배 전국어린이농구큰잔치 결승에서 만난 부산 성남초등학교를 44대 29로 꺾고 영광의 우승을 차지함으로써 1994년 전국소체 우승에 이어 16년만에 이룬 쾌거였다.

최우수 선수상을 수상한 김병수는 3번의 화려한 덩크슛을 선보이며 미래 대한농구의 대들보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양준우의 화려한 개인기, 김대경과 성현식의 정확한 중거리슛, 이우석의 긴팔을 이용한 블록슛과 리바운드를 선보이며 최강 전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교장선생님은 “교육청의 많은 지원과 격려, 총동창회를 비롯한 많은 단체에서의 격려와 응원, 학부모님들의 열성적인 도움과 지원 등으로 전국 최강의 자리에 올라선 것에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무엇보다 고생한 우리 명품 동광농구부원들의 노력에 큰 박수를 보낸다.”라며 우승 소감을 밝혔고, 허병진 농구부 지도코치는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 끝에 일구어낸 이 금메달의 값어치는 우리 농구부원들이 흘린 땀방울과 눈물에 비할 바가 아니다. 오늘의 감격이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김해교육청 유현태 교육장님을 비롯하여 도교육청 관계자 분과 농구협회 관계자님,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이들에게 이 영광을 돌린다.”라며 금메달 소감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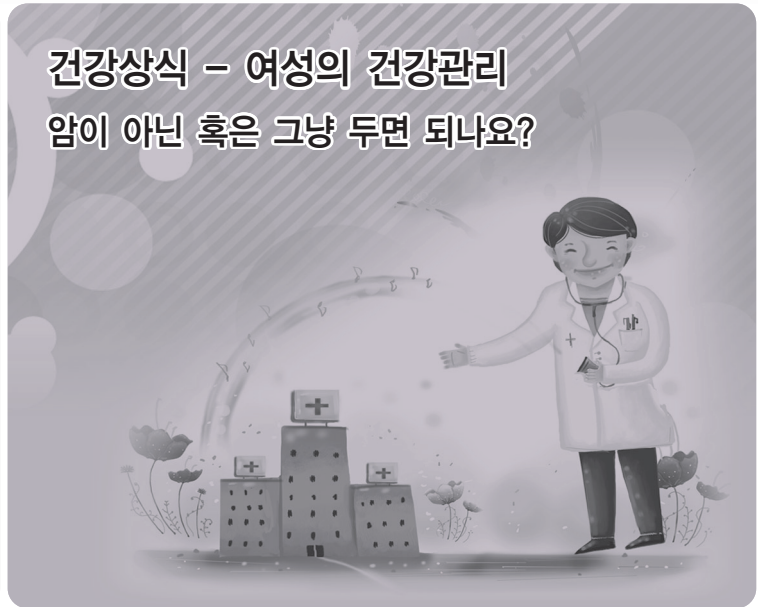


전/문/가/초/대/석



장 석 원
미즈유외과 원장

건강상식 - 여성의 건강관리 암이 아닌 혹은 그냥 두면 되나요?



유방에 혹이 있어서 수술하는 전체 환자 중 유방암으로 수술하는 환자 수보다 유방 양성종양으로 수술하는 환자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유방 양성종양이란 유방에 발생하는 암이 아닌 모든 종류의 혹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양성 종양의 종류에 따라 암의 발병 가능성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9배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방 양성종양도 절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방 양성종양의 종류와 암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제거해야 할 종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의 양성종양의 명칭은 초음파 검사 후 절제 생검(혹의 덩어리 전체를 채취하여 현미경으로 검사)하였을 때 확정되는 이름입니다.

1. 섬유선종

섬유선종은 우리나라 여성에게 가장 흔하며 양성 유방 종양의 50%를 차지합니다. 특히, 청소년기나 20대, 30대 초반에 가장 흔히 발견되는 양성종양으로서 10%에서는 양측 유방에서 나타나며 크기는 보통 1~2cm이며 2~3cm 정도까지 자랍니다.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 임신 중이나 수유기간 중 종양이 커질 수 있으며 그대로 두면 35세 이상 여성에서는 간혹 염상종양(암으로 진행 가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임기 여성(20대 초반~40대 초반)에서는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왕성한 시기이므로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하며 폐경기가 지난 여성의 섬유선종은 초음파에 의한 경과 관찰이 중요합니다. 단, 폐경기 증후군으로 호르몬제를 복용하는 여성은 암으로의 발전 연관성이 있으므로 유방전문의와 신중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2. 섬유 낭종성 질환

30대, 40대 여성에서 잘 생기며, 주로 유방통이 있는 경우가 많고 불규칙하게 오돌도돌하게 만져진다고 표현합니다. 특히 생리 전후 유방통이 심하며 대부분의 경우에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간혹 단기간에 크기가 커지는(증식성 변화) 경우에는 유방암과 감별이 어려우므로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유방통이 있는 경우 카페인이나 초콜릿 등을 피하면 효과를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3. 유관 내 유두종

35세에서 55세에 흔하며 유관 내에 상피세포의 증식으로 생기는 작은 종양으로 유두에서 핏빛의 분비물 또는 맑은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가 흔하고 간혹 유륜 주위에서 만져지기도 합니다. 영상검사 만으로는 유두상 유방암과 구별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절제조직 검사가 필요합니다. 유관내 유두종으로 진단된 경우는 암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단순 낭종(물혹)

40대 후반에서 폐경 전 여성에 흔하며 초음파 검사에서 주머니가 액체를 담고 있는 양상으로 보이며 대부분 암으로 발견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간혹 액체 성분 내에 고형성분을 포함(복합성 낭종)하고 있거나 단기간 내에 크기가 증가한다면 조직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5. 염증성 유방질환

수유기 유방염, 유방 농양(고름주머니), 유관의 확장과 동반된 유관의 염증 등이 있습니다. 단순 유방염은 항생제 등으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유방농양은 농양을 체외로 배출시키는 배농술이 필요합니다.

6. 유관확장증

2차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유두 주위의 유관이 늘어나는 것을 말하며 유관 내의 찌꺼기나 장기간의 위장약 복용으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관 내 유두종이나 주위 혹에 의해 밀려서 2차적으로 생긴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7. 비정형 상피세포 증식증

유관 내의 상피세포의 모양은 정상이나 세포의 숫자가 늘어나 혹처럼 보이는 병변으로 대부분 조직검사 후에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현미경적만빠기로 검사하여도 관상피 내암과의 구별이 모호한 경우가 있으며 유방암의 발생율이 9배 증가합니다. 따라서 조직검사서 비정형 상피세포 증식증으로 진단이 되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주된 병소 뿐 아니라 주위의 정상조직도 일부 절제하여야 합니다.

8. 엽상종양

전체 유방의 1% 내외로 섬유선종과 달리 현미경상 나뭇잎 모양으로 보인다고 붙여진 이름입니다. 섬유선종처럼 말랑말랑하게 만져지며 크기는 대개 2~3cm 정도 되며 영상검사에서는 섬유선종과 구별이 힘든 경우가 많아 절제하기 전에 바늘 조직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간혹 재발하는 경우가 있어 비정형 상피세포 증식증처럼 수술시 주변 정상조직을 일부 절제해야 합니다.

9. 여성형 유방

남성에게 발생하며 여성의 가슴처럼 유방이 붓듯 올라오는 증세로 병원을 방문합니다. 원인은 남성 호르몬이 사춘기 이후에 감소되어 상대적인 여성 호르몬의 비율 증가 때문에 생깁니다. 사춘기 이전에는 대부분 관찰하다가 사춘기 이후에도 계속 가슴이 부풀어 있으면 수술을 고려합니다. 특히 진성 여성형 유방(유방의 지방조직이 아니라 유선조직이 발달한 경우)는 유방x-ray나 유방 초음파로 유선층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일부 성형외과나 피부과의 지방 흡입술만으로는 교정이 되지 않고 유방전문 의사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10. 부유방

겨드랑이 밑에 주로 생기며 흔히 덩어리가 만져지거나 생리시 유방통으로 아프다고 표현합니다. 이는 정상 유선조직이 가슴이 아니라 겨드랑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통증이 심하거나 크기가 커져서 불편감을 느낄 땐 수술을 고려합니다. 단, 부유방과 혼돈하기 쉬운 질환으로 여름에 민소매 착용시 앞으로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살이 있는데 유방 초음파상 유선조직은 보이지 않고 지방이 덩어리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미용적으로도 보기 싫기 때문에 흔히 부유방으로 오인하고 절제술을 하는데 이런 경우엔 지방용해주사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11. 함몰유두

함몰유두는 단순히 유두 밑의 지지조직의 약화나 유선의 발달 미약인 경우 뿐 아니라 유선 염의 재발, 유방암의 견인 현상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으므로 수술 전에 원인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염증의 급성기에는 염증의 치료를 끝내고 수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방 양성종양의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미즈유외과 www.mizu.co.kr(질문과 답변)로 이용하세요.

‘창의적 말놀이’ 활동으로 자기표현능력을 신장시켜요



성 경 은
창녕 명덕초등학교 교사

초등학교에서의 기초학습은 국어과 수업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은 우리말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이해하는 기초적인 능력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올바른 국어사용을 지도하기 위하여 흥미중심 말놀이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자기표현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수업방법을 통한 접근

- ▶ 국어수업에 호기심 붙여넣기- 아침학습 활동 시간 20분을 말놀이 학습 자료 투입으로 흥미롭고 재미있는 국어학습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
- ▶ 학습목표도달을 위한 공부할 문제는 6월까지의 교사위주로 안내하고 7월부터는 매차시 분시학습계획에 맞추어 동기유발 자료를 제시하여 학생 스스로 공부할 문제를 찾게끔 유도한다.
- ▶ 학습활동 안내는 교실에 비치된 ‘블랙보드(Blackboard)’, 천장에 매단 종이풍선, 칠판속 자료 제시 등 다양한 자료로 변화를 주어 분시학습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한다.
- ▶ 발문의 조장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아이 엠 그라운드’, ‘시장놀이’ 등 여러 가지 말놀이 학습 자료를 적용하여 지속적인 창의적인 발문이 나오게 한다.
- ▶ 학생들의 어휘력 향상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알림장을 쓰고 난 후의 하교시간에 체계적인 피드백(즉석 말놀이) 을 실천한다.
- ▶ 학생들의 학습결과 도출은 개인별 산출물 파일 및 학습홈페이지상의 우수작 스캔 및 사진 올리기 등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도록 한다.

2. 언어 표현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환경 조성

말놀이 학습으로 학생들의 표현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교실 환경을 자료화하고 저학년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다양하게 구성한다.

- ▶ 많은 어휘의 구사를 유도하기 위해 사계절 교실환경을 식물 및 생물재배로 구성하여 교실에서 편안하고 안정된 분위기가 느껴지도록 구성한다.

▶ 교실의 모든 물건을 자료화, 단어화시켜 그 물건으로 주제어를 던지면 곧바로 말놀이를 이어지게 하여 많은 어휘력을 구사하도록 한다.

3. 창의적 말놀이 활동으로 어휘력 및 자기표현 능력 신장시키기

학생들에게 요일별로 제시되는 언어놀이 유형으로 낱말 이어가기, 이야기 꾸미기, 낱말 퍼즐, 그림보고 글쓰기, 낱말 찾기, 내용꾸미기, 상상하여 재미있는 글 만들기, 생각하여 알아보기, 낱말 꾸미기 등이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학생들에게 언어표현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여 기본적인 사고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가. 재미있는 어휘 확충놀이

말놀이는 언어 사용의 재미를 느끼며 풍부한 상상력과 언어의 유희성을 익히는 놀이로 창의력과 관찰력을 기를 수 있다. 학생들에게 적용할 놀이자료에는 주변 환경과 관련된 주제, 계절, 가게, 위인, 동화, 곤충, 낱말 등을 내용으로 하여 진행해보면 매우 흥미로워 한다.

▶ 시장보기 놀이

- 1) 모듈별로 하기에 알맞은 놀이이다.
- 2) 가위 바위 보로 순서를 정한다.
- 3) 맨 처음 사람이 “시장에 가면 (두부)가 있다” 라고 말한다.
- 4) 그 다음 사람은 앞사람이 말한 것을 그대로 기억해서 반복한 후 자기가 새로 생각한 것을 덧붙여서 말한다. “시장에 가면 (두부)도 있고 (순대)도 있다.”
- 5) 계속해서 뒷사람은 이전 사람이 말한 것을 차례대로 기억해서 말하고 중복되지 않게 새로운 것을 첨가시키면서 놀이가 진행된다.
- 6) 앞사람이 말한 것을 틀리게 말하거나 주제에서 벗어나거나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지 못하면 파울이다. 파울이 계속되면 정해진 벌칙을 받는다.
- 7) 시장 대신에 문방구, 완구점, 슈퍼마켓, 제과점, 철물점, 농촌, 바다, 산, 교실, 방송국, 동물원, 생선 가게, 과일 가게, 채소 가게, 신발 가게, 옷가게 등으로 다양하게 수준에 맞는 주제를 잡아서 할 수 있다.



▶ 말놀이 게임-사다리 타기, 수수께끼, 언어놀이

▶ 풍지 따기 놀이

▶ 연상 낱말 알아맞히기 게임(두 가지-세 가지-네 가지 - 다섯 가지 등으로 점차 늘려간다)

▶ 사물이름대기

▶ 동화책 내용말하기

▶ 낱말카드 놀이

[예] 카드에 사과가 있다면 “사과가 어떻게 생겼어?”, “사과는 무슨 색이야?”, “이 사과를 먹으면 무슨 맛이 날 것 같아” 등으로 계속해서 질문하는 방법으로 어휘를 확충시켜 나간다.

나. 쉬운 말놀이 4단계 적용으로 어휘력 키우기

1) 1단계 끝말이 똑같은 낱말 찾기

우리 몸의 각 부분의 명칭을 찾아 관련된 노래인 ‘머리 어깨 무릎 발, 코코코 게임으로 표현한다. 사과→과자→자동차 등으로 이어가는 끝말 잇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기초적인 말놀이 활동이다. 이 게임은 기초단계에 속하므로 학생들이 흥미를 보이지 않는다면 낱말 찾기로 ‘독수리’라고 하면 ‘수리’로 끝나는 낱말, 즉 정수리, 상수리, 집수리 등을 찾게 하고, ‘라미’로 끝나는 말로 귀뚜라미, 맨드라미, 동그라미 등의 게임도 있다.

2) 2단계 언어 놀이

▶ 한 글자 집어넣기 ‘아기의 얼굴이 방긋/토끼가 귀를 쫑긋/할아버지 머리가 희끗/아빠가 왕크하네, 찡긋’

▶ 사물의 종류 넣기 ‘토끼 똥/강아지 똥/소똥/뉘똥/똥은 똥/물똥/어라, 광현이 눈이 말똥말똥 하네’

▶ 동물의 소리와 모습 찾기 ‘귀뚱귀뚱 귀뚜라미/기럭기럭 기러기/빠죽빠죽 빠꾸기/뚝뚝 뚝뚝 뚝부기/개굴개굴 개구리/따옉따옉 따오기/뿔뿔뿔뿔 뿔미/미끌미끌 미꾸라지’ 등으로 저학년 학생들이 좋아하는 동물로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한다.

3) 3단계 동음이의어 찾기

우리 몸의 배, 맛있는 과일 배, 퐁퐁퐁 물 위를 떠다니는 배처럼 글자의 음은 같으나 뜻이 다른 낱말을 찾는다. 저학년 학생들에게 활용하는 동음이의어로서 대표적인 것은 밤, 차, 상 등 주로 명사들인데 여기에 흉내내는 말을 포함시켜 말을 시켜보면 재미있는 문장을 지어낸다. ‘색종이를 가위로 자르고 풀로 붙여서 풀이 무성한 풀밭을 만들었어요’, ‘어라, 나비가 풀풀 날아와 풀밭에 앉았네요’ 등

4) 4단계 흉내내는 말 찾기

『툭』(푸른 숲)이라는 책을 읽은 후 학생들과 즉석에서 만든 언어놀이의 예이다. ‘뽕’, ‘ 짹’, ‘콧’, ‘뽕’, ‘똥’ 등 한 글자로 표현되는 흉내내는 말을 선택해 짧은 글을 지어보게 한다. ‘뽕’을 주제로 한다면 ‘공을 뽕 잡니다’, ‘옥수수가 뽕 하고 튀겨 집니다’, ‘양말에 구멍이 뽕 뚫렸습니다’ ‘짹구는 똥을 자주 눕니다’ 등



4. 말놀이 활동으로 달라지는 아이들

자기표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용한 창의적인 말놀이 활동은 학생들의 언어표현활동의 기본적인 사고정착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활동들은 학생들에게 상상력과 언어의 유희성을 익히는 동시에 어휘력이 강화되고 발표력이 향상되어 자신감 및 학습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학업성취 결과도 높게 나타나고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자아효능감이 상승하는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소설 변조를 통한 창의력 향상



류 재 홍

창원 진해여자고등학교 수석교사

해마다 대입 수능이 끝나고 연출되는 고3 교실의 풍경 하나를 소개해 본다. “선생님, 우리 이제 뭐해요, 모두 다 배웠는데 재미있는 얘기 좀 해 주세요, 수업 이제 안 해도 되잖아요.” 이러한 장면 속에서 곤혹해지는 선생님. 뭔가 가르치고 뜻 깊은 시간을 만들기 위한 기대는 물거품이 된다. 한참 동안 멍하니 학생들을 바라보는 가운데 잡담은 시작되고 교실이 어수선히 진다.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 부분만 공부하자.” 이렇게 소리쳐도 도무지 말을 듣지 않는다. 아마 고3 수업을 담당한 모든 선생님들이 이와 유사한 경험이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재미있게 읽었던 소설 한 편이 있었는데 한 번 얘기 해 볼까?” 학생들이 박수치고 야단이다. “좋아요 빨리해 주세요.” 이렇게 시작되는 소설 이야기는 대부분 즐거리를 말하는 형식이다. 펼치는 이야기보따리는 학생들과 교과 수업시간에 접하지 못했던 작품일수록 더욱 좋다. 이때는 원전을 고집하지 말고, 교사의 무한한 상상력을 동원하여 가공되고, 변조된 작품 즐거리를 마음껏 펼치는 시간으로 만들어 본다.

주인공의 외모나 성격을 이상형으로 변질시키고 초인으로 바꾸어 본다. 갈등의 유형도 ‘개인과 개인’ 혹은 ‘개인과 사회’로 설정하고 주인공이 처한 열악한 사회적 환경과 부조리한 삶의 현실을 극복하는 것으로 바꾼다. 시련과 역경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악의 축’에 해당하는 대립적 인물도 등장시켜 끊임없이 갈등을 조장하고 긴장시킨다. ‘위기와 안정’, ‘싸움과 평화’, ‘사랑과 미움’을 적절히 반복하고, 조화시켜서 필연성을 갖춘 스토리로 전개해 간다. 또한 중간 중간에 ‘왜’라는 인과관계에 대한 질문을 던져 가며 진행한다면 학생들은 대단히 흥미롭게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전개되는 이야기보따리는 50분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성급하게 무대의 막을 내려서는 안 된다. 2편은 다음 시간에 연속될 것임을 공지하고 지금까지 말한 스토리 가운데 앞뒤 연결에 모순되는 점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여 다음 시간에 질문하게 한다.

2차시에 계속된 제 2편의 줄거리 말하기가 끝났을 때 원작과 다르게 변조된 사실을 학생들에게 알려준다. 인물의 성격과 사건, 갈등 양상, 스토리 변환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는 것과 동시에 학생들의 발산적 사고를 자극하기 위한 의도적·계획적인 행동이었음을 말해도 좋을 것이다. 또한 학생들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거나 변조하여 동생들이나 후배들에게 말해 줄 수 있음을 주지시킨다. 이와 같이 처음 시도하는 작품 변조가 부담스럽고 어렵다면 이미 공부하여 잘 알려진 저명한 소설을 1편 선택하여 간략하게 ‘결말 연장’을 시키는 방법도 새로운 줄거리 창조를 위한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여태까지의 1·2차시의 교사 줄거리 말하기는 흥미와 동기유발을 위한 것이다. 3차시부터의 학생활동이 중심이 되는 본격적인 작품변조를 위한 구체적 방법은 다음과 같다.

3차시에는 학생들에게 변조할 수 있는 소설의 구성 요소를 상기한 예문을 통해 미리 제시하고 그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거나, 스스로 창안해 낸 변조 내용으로 인과관계를 갖춘 ‘줄거리’를 쓰게 한다. 구성요소를 변조하여 줄거리를 만드는 쓰기와 표현하기를 실시한다.

4차시에는 만든 줄거리의 내용을 발표하는 ‘말하기’와 이를 함께 경청하는 ‘듣기’, 급우들의 창작물을 서로 돌려 읽는 과정을 거친다. 다시 말해 국어과 학습지도의 전 과정을 수반하는 문학 교과와 수업의 과정을 거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추리력, 논리적 사고력까지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때 1·2차시와 3·4차시를 각각 1시간으로 묶어도 상관없다.

미리 준비하면 교실 수업을 개선할 수 있다. 고3 교실에서도 학생들의 희망을 파악하고 수렴한다면 ‘창의력 향상’이라는 국어과 교육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또한 교사는 교사용 지도서의 시간 배정과 학습 내용을 재구성할 수 있다. 과제를 통해 미리 줄거리를 쓰게 한 다음이라면 그리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21세기의 화두가 창의력 향상이며,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교육목표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창의성 교육’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단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본다.

교 무업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경남교육



정운영
양산 화제초등학교 교사

글 쓰는 순서	
1	학년말 업무
2	학년 초 업무 계획
3	업무결재 관련
4	학부모 서비스 확대 방안
5	출결 및 전출입
6	수행평가 및 성적처리
7	학적관리(유예, 면제, 정원외)
8	유학생 학적관리
9	각종 누가 기록 관리
10	기록부 정정 대장
11	차세대 교무업무시스템

활용	유학생의 학적관리	NEIS
----	-----------	------

교무업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재의 여덟 번째로는 당초 계획은 각종 누가기록 관리에 대한 내용의 연재였으나, 8월 호의 학적관리에 있어, 지면 제한으로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어 부득이 이번 호에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앞서 8월 호에서는 ‘유예’, ‘면제’, ‘정원의 관리’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9월 호에서는 학적관리 중에서도 ‘유학생들의 학적관리’ 처리 요령에 대해 싣고자 합니다.

수년간 교무업무시스템 현장지원단 활동을 해 오면서 가장 문의가 많은 부분이고 도움을 많이 요청해 온 부분입니다. 점점 늘어가는 사례 수에 비추어 볼 때, 교무업무시스템 업무처리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팁 중의 하나

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유학 간 학생’에 대한 학적 처리 방법

1. 합법 유학일 경우(인정 유학)

가. 대상

- ▶ 전공분야 특기생으로 학교장 추천에 의해 교육장이 유학을 인정한 예·체능계 중학생
- ▶ 외국 정부, 공공단체 또는 장학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국립국제교육원장의 허가를 받아 조기 유학하는 초·중학생

- ▶ 이민,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으로 해외파견, 부모의 해외취업 등에 의해 전 가족이 외국으로 출국하여 합법 체류하며 해당국가 정규학교에 재학하다가 귀국한 경우

나. 처리 방법

- ▶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날부터 유예처리

다. 관련 서류

- ▶ 유예 신청서
- ▶ 부모와 함께 해외출국, 파견, 이민, 체류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관련 서류 (부모님의 해외 발령장, 출입국 증명서, 여권사본 등)

2. 불법 유학일 경우(미인정 유학)

가. 대상

초·중학생으로서 위의 경우 외의 유학이거나, 위의 경우에 해당되어도 그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는 불법유학

나. 처리 방법

최초 결석일부터 3개월간 무단결석 처리 후 정원의 관리(교무업무시스템에서는 유예에 등록하고 비고란에 ‘정원의 관리’를 명시)

- [사례 1]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치르고 5월 17일에 외국에 불법유학을 갔을 경우 이 학생은 5월 17일부터 8월 17일까지 결석처리 후 정원의 관리 (단, 기말고사는 무단결석으로 처리,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의해 성적처리)
- [사례 2] 1학년 2학기 중간고사를 치르고 11월 27일에 불법유학을 갔을 경우 2학기 성적은 성적관리 규정에 의해 처리, 이 경우 1학년 수료 됨. (출석일수가 수업일수의 2/3를 넘었기 때문)

다. 관련 서류

- ▶ 불법 유학으로 인해 정원의 관리를 할 경우에는 학교가 학생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학생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므로, 불법 유학을 떠난 증거로서 출입국 증명 서류와 해외학교 취학 서류 정도 첨부

유학 후 귀국 학생에 대한 학적 처리 방법

1. 학력 인정 및 학년 배정

- ▶ 학년 배정은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상의 재학기간과 성적증명서 상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여 정함 (외국학교 입학 전 국내 학교의 최종 재학 기간에 외국학교 재학기간을 합하여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계산)
 - 외국학교에서의 1~6학년 :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과정
 - 외국학교에서의 7~9학년 : 우리나라의 중학교 과정
 - 외국학교에서의 10~12학년 :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과정
- ▶ 9월에 1학기가 시작되는 나라에 가서 공부함으로써 학제 차이로 인해 한 학기가 중복되었을 경우 귀국 후 국내 학교에 편입학할 때 한 학기 올려주고, 한 학기 월반이 되었을 경우 국내 학교에 편입학할 때 한 학기 내려서 학년을 배정

▷ [예] 2006. 7. 20까지 국내 중학교 1학년(7학년) 1학기 재학

- 2006. 9. 1~2007. 6. 20(7, 8월방학) : G8 수료
- 2007. 9. 1~2008. 6. 20 : G9 수료
- 2008. 9. 1 : 국내학교 편입학 시 중학교 3학년으로 배정

⇒ 학제 차이로 7학년 2학기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고 월반하였으므로 국내 편입학 시 월반된 한 학기를 빼서 9학년 1학기까지 수료한 것으로 인정하여 중학교 3학년에 배정

- ▶ 외국에서의 유치원 수료, 어학연수(ESL), 개인 학습(가정교사) 등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정규학교 ESL반(과정)에서 정규교육과정의 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이수하고 성적이 산출된 경우에는 학력을 인정
- ▶ 거주 국가의 초등학교 학제가 7년~8년인 경우, 그곳에서 졸업하였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해당 학년에 편입학
- ▶ 미인정 유학자인 경우 학력 인정 및 학년 배정 시 반드시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를 거쳐야 함.(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2. 정원의 학적 관리된(불법유학) 학생의 학적 처리

- ▶ 당해 연도에 재취학 하고자 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당해 연도에는 재취학이 불가하며, 재취학 하더라도 출석일수가 부족하여 학년말에 진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학부모에게 주지시키고 재취학을 허용
 - 단, 학교장의 권한에 의해 학업중단 당시의 학년으로 재취학을 허용하는 경우는 새로운 학년을 배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 실시 대상이 아님.(근거법령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
- ▶ 1년 이상의 장기간 정원의 학적 관리된 학생이 재취학·편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 정원의 관리자, 면제·유예자가 재입학 또는 편입학하고자 할 때는 정원의 관리자나 면제·유예당시의 학년으로 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령에 비해 매우 낮은 학년으로 배정됨으로써 학교생활 적응상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학생, 보호자의 희망이 있을 경우,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여 학년을 배정할 수 있음.(근거법령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3. 편입시 유의 사항

- ▶ 정원의 학적 관리된 학년 이하의 학년에 재취학
 - 정원의 학적 관리된 학년의 학업성적 및 결석상황이 소멸되며 재취학 편입학하여 수행한 최근의 기록으로 갱신
- ▶ 정원의 학적 관리된 학년보다 상급의 학년에 취학 및 편입학 희망할 경우
 - 해당학교의 학칙에 따른 수학가능성 평가 결과에 의한 학년에 일반 취학 및 편입학 가능

- 외국에서 수학한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 및 학업성적을 인정하는 것은 아님
- 학년 누락에 의한 제반 불이익 본인 감수
- 정원의 학적 관리된 학년의 학업성적 및 결석상황은 그대로 유지

- ▶ 인정 유학자인 경우는 편입학 규정의 학력인정 기준에 의거하여 학년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미인정 유학자인 경우는 서류심사 외에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실시 후 기준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야 함.(귀국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는 과목별 기준이나 평가 방법 등의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 귀국 전 재적교 재학일로부터 전·편입학 신청일까지 학업공백이 출석일수의 1/3 이상인 귀국자는 학년 배정 시 출석일수 2/3 이상이 확보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당해 연도에는 편입학이 불가하며, 편입학하더라도 출석일수가 부족하여 학년말에 진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학부모에게 주지시키고 편입학 허용함.

4. 편입학 방법 및 절차 안내 시 유의 사항

- ▶ 외국학교 최종 재학일 이후 1개월 이내에 편입학을 하도록 한 것은 수업일수(수학기간) 미달로 인한 학년배정 상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 외국에서 해당학기를 수료한 경우에는 최종 재학일 이후 1개월이란 기간을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 ▶ 외국에서 해당 학기를 수료하고 편입학한 학생의 경우, 편입학 한 학교의 학칙에 따라야 하나, 외국 학교에서 성적을 취득한 학생의 정기고사 응시여부는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특히 기말고사를 면제한 경우는 해당학생의 당해 학기의 교과학습발달상황(성적)은 공란으로 처리됨을 학부모 및 학생에게 사전 안내해야 합니다.
- ▶ 일반 학생들의 거주 지역과 동일한 지역에 거주하는 귀국학생에게 편입학을 허용하고, 주소지가 일반 학생의 배정 범위를 벗어난 지역의 학생이 편입학을 신청하는 경우 거주지 인근 학교로 편입학하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이상 학적관리 중에서도 '유학생들의 학적관리' 처리 요령에 대해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유학생이 늘어가는 요즘, 다양한 사례에 맞추어 일선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길 기대합니다.

아름답고 다양한 어린이들의 꿈을 가꾸기 위한 RAINBOW 북정 꿈빛 교육 실현



임 인 철

양산 북정초등학교 교장

I. 누구나 꿈은 꿈입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어른이 되면 무엇을 하고 싶어?’ 라고 물어보면, 모두 ‘나는 커서 ()가 될래요’ 라고 말을 한다. 그러나 정작 그 꿈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냐고 물어보면 대답하지 못한다. 아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남과 다른 소질과 적성을 모르는 채 초등학교 6년 동안을 지내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본교는 교육의 주체인 학교, 교사, 학부모가 삼위일체가 되어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남과 다른 특색있는 차별화 교육을 강화하고, 자기의 뜻을 세우고 타고난 소질과 적성을 꾸준한 노력으로 키워 나가는 어린이를 육성 하자는 취지에 ‘RAINBOW 북정 꿈빛 교육’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여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II. 무지개 일곱 빛깔처럼 다양하게

1. RAINBOW 북정 꿈빛 교육

본교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는 다원화, 정보화, 세계화된 사회로서 이러한 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기르기 위해 본교에서는 ‘RAINBOW 북정 꿈빛 교육 실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여 예쁜 어린이(Respect-덕성교육), 새로운 어린이(Apply-인재교육), 아름다운 어린이(Intelligent-교양교육), 큰 어린이(Network-세계시민교육)로 기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자랑스러운 학교(Base-교육여건개선), 고마우신 부모님(One-교육공동체형성), 멋진 선생님(Wisdom-교원전문성 신장)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첫째, ‘예쁜 어린이’를 기르기 위해 생활실천 10훈 운동, 그린마일리지제 실시, 밥상머리 교육, Wee-class와 연계한 상담 및 진로활동을 전개하여 덕성 교육에 이바지하고 있다.

01



02



01 글벗누리 도서관 활용 모습

02 교내육상경기대회

둘째, ‘새로운 어린이’를 기르기 위해 복정 꿈빛공부방, 교과별 심화 프로그램 운영, 1인 1주제 탐구프로젝트, 학습정보활용수업을 통한 자기 주도적 학습력 신장, 담임교사와 학급의 특성을 살린 학급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창의적인 새로운 인재 육성에 이바지 하고 있다.

셋째, ‘아름다운 어린이’를 기르기 위해 교과 활동과 연계한 각종 경진대회(음악경연대회, 미술실기대회, 요리경연대회, 수학경시대회 등) 개최, 지역사회의 축제로 발전하고 있는 복정음악제 개최, 양산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하는 교내육상 경기대회, 내실있고 특색있는 도서관 활용 독서교육 행사, 18개 부서로 조직되어 운영하는 ‘방과후 학교’로 사교육 없는 학교 등을 통하여 교양있는 아름다운 어린이를 양성하고 있다.

넷째, ‘큰 어린이’를 기르기 위해서 교과서가 아닌 테마별 생활영어를 매주 1시간 증배 운영하며, 지역사회 봉사활동(지역기관 방문, 환경정화활동), 각종 캠페인으로 나눔과 배려의 마음을 실천하고 있다.

학교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교육여건 개선 사업으로 교육활동을 전개하기에 용이한 ‘자랑스러운 학교’를 만들고 있으며, 학부모와 함께 본교 어린이들을 교육하기 위한 ‘좋은 학부모 교실’ 3일간 운영, 학부모 참여 공개 수업, 학부모와 함께 하는 동아리 활동 전개 등으로 ‘고마우신 부모님’과 함께 교육공동체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본교 선생님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다양한 연수활동을 전개하여 ‘멋진 선생님’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특색있는 교육활동

■ 졸업식-꿈가꾸리 빛나누리 축제(2010.02.18, 저녁 7시 30분, 본교 강당)

이 축제는 맞벌이 학부모의 처지를 고려해 졸업식 행사 자체를 저녁 시간으로 잡았으며 졸업생과 재학생이 함께 2009학년도 성과발표회, 졸업축하공연, 졸업식을 함께 펼쳤다. 본 행사인 졸업식은 졸업생 전원이 단상에 올라 학교장으로부터 졸업장을 받고 축하인사를 들었으며 대형스크린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사진과 프로필이 띄워져 졸업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공으로서 뿌듯함을 느끼게 하였다.

졸업식이 공부 잘하고 특별한 상을 받는 누군가만 주목받는 날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로 나아가는 졸업생 전원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 되고 학생 모두가 스스로 소중한 존재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으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의식을 굳건히 함으로써 학교폭력이나 집단 따돌림과 같은 학교 내 생활지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 ‘꿈가꾸리 빛나누리 축제’는 졸업생 전원이 주인공이 된 새로운 졸업문화 창조로 ‘경남도민일보 사설(2010. 02.24)’에 보도가 될 정도로 이슈가 되었던 축제 한마당이였다.

03



04



03 동아리 활동

04 좋은 학부모 교실

■ 제3회 북정음악제(2010.07.07~07.08, 저녁 7시 30분, 본교 야외 특설 무대)
 매해 여름밤 학부모와 지역 주민 500여 명을 모시고 본교 야외 특설 무대에서
 연주되는 ‘북정음악제’는 올해 3회째를 맞고 있다.

첫째 날은 전야제 행사로 ‘극단 휴’를 초청하여 국악 관현악, 국악 풍요 등의
 국악 공연을 펼쳐 한국적 정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둘째 날은 풍물부, 합창부, 기타부, 하모니카부 등의 동아리가 틈틈이 연습한
 솜씨를 뽐내었으며 5월에 있었던 북정음악경진대회 수상자들의 공연과 함께 올
 3월에 창단한 챔버 오케스트라의 ‘신세계 교향곡 2악장’ 연주가 밤하늘을 수놓
 았다.

북정음악제를 통해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소질을 개발하고 직접 무대에서 발표
 할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의 자기 진로를 개척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음악회
 를 접하기 힘든 지역 주민과 함께하여 교육공동체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 좋은 학부모 교실(2010.06.16~18, 저녁 7시~9시, 본교 꿈빛곳간)

학부모들에게 참된 교육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좋은 학부모 교실을 3일간 저
 녁 시간을 이용해 개최하였다.

대구대학교 고익환 교수를 초청해 ‘독서와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 강화’, ‘행
 복한 가정과 칭찬이 공부의 밑거름’, ‘행복한 아이를 위한 감정 코칭’이라는 주
 제로 강의를 펼쳤다.

특히 이번 강의는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강의 시간을 퇴근
 시간 이후인 저녁 7~9시 까지로 했고, 3일 동안 직장에서 바로 오시는 학부모님
 들을 위해 저녁 식사까지 제공하는 정성을 기울여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
 으며 학부모들이 자녀와 올바른 대화 기술을 익히고 실질적인 부모 역할을 잘 수
 행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Ⅲ. 학생들이 잘하는 것을 찾아…….

무지개 빛깔처럼 아름답고 다양한 학생들의 소질과 능력을 발견하고 이를 개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교육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학부모와 지역사회와의 신뢰를 받는 학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본교만이 갖고 있는 특색을 살리고, 자신만이 갖고 있는 남과 다른 강점을
 살려 차별화된 교육활동이 전개되어 북정의 꿈빛 교육이 실현되고 있다.

05



06



05 제3회 북정음악제

06 학습정보활용수업

얼굴과 전통은 다르지만 마음은 하나



오 재 호

김해 진영대창초등학교 교장



01

금병산 자락에 우람히 자리하고 있는 대창초등학교는 91년의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며 급변하는 교육의 흐름에 선두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사회적으로 다문화 교육이 활성화되자 반농반촌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중소기업의 밀집지역으로 국제결혼 가정이 늘어 김해 지역 초등학교 중 다문화 아동이 가장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02

따라서 다문화가정의 자녀와 학부모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고 학교에서도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다문화지역중심학교와 거점 학교를 신청하여 다문화가정과 일반 아동이 하나 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다문화가정 아동들에게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학력향상이었습니다. 도구교과인 국어, 수학과는 물론 한국문화이해를 돕기 위한 사회 교과를 중점적으로 지도하는 디딤돌 공부방을 운영하였습니다. 교사 중 자원봉사자를 희망 받아 학년별, 과목별 교육을 실시하여 다문화 아동들과 일반 아동들과의 학력차를 줄이고, 사교육비를 없앴으로써 대부분 기초수급자의 다문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었습니다.



03

다음은 다문화가정이 대부분 저소득층에 해당되어 경제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어린이날 복지 행사를 열어 아이들에게 필요한 옷과 신발을 사는 시간을 마련하였고, 단감 축제기간에는 단감 따기 체험학습을 실시하였으며, 가족동반여행 시간 등을 마련하여 소외되기 쉬운 다문화 가정에 소박한 행복을 만들어주기도 하였습니다.

아이들에게 무엇보다 뜻 깊었던 프로그램은 전국 다문화센터에서 주최하는 제 1회 전국다문화어린이 합창대회에 참여한 것입니다. 다문화가정 아동 13명과 일반 학생 14명이 하나의 팀이 되어 창작 동요인 '함께 걸어 좋은 길'을 5월 한 달 동안 연습하면서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 아동들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으며, 서울 남산국악당 무대에서 160여명의 관객들 앞에 멋진 공연을 펼쳐 보임으로써 그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01 디딤돌 공부방 국어 지도

02 디딤돌 공부방 수학 지도

03 디딤돌 공부방 사회 지도



〈전국다문화어린이 합창대회〉



〈학부모 다문화이해 연수〉



〈도자기 교실 교양 강좌〉

다문화가정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확산하기 위하여 6월에는 학부모 이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문화 연구가인 부산대학교 곽한영 교수님을 초빙하여 ‘다문화 사회 이해하기’ 라는 주제로 김해시내 초등학교 학부모 100여 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였는데 참여한 학부모들이 큰 갈채를 보내주었으며 학부모들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다문화학부모 교육으로 교양강좌를 개설하여 학부모들의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한국 생활에 활력소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전통무용 교실과 한글 교실, 도자기 교실 등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배움에 대한 기쁨과 함께 일반학부모와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교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글로벌시대의 리더로 자라기 위한 프로젝트로 세계와 함께하는 다문화이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계발활동 부서 중에 ‘세계문화이해부’를 조직하여 테마별 수업에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을 초빙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애니메이션 주제가 배우기, 일본어와 중국어로 간단한 회화하기, 일본의 전통 의상 입어보기, 오키노미야끼 요리 해보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여러 나라의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특별활동 및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다문화이해 영상 자료로 다문화이해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 학기 동안 다문화 아동 이해 프로그램 계발 운영 결과 다문화 아동들 중 부진아 수가 많이 줄어들었고, 예전에 비해 그들의 표정은 밝고 환해졌습니다. 일반 아동들도 모습과 말투, 국적은 달라도 한국 땅에 사는 한국 사람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도와주려는 마음이 한결 더 자라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문화라서 주눅들거나 기죽지 않고 당당히 자신이 다문화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 넘치며, 일반 아동들과 함께 어우러져 하나되는 모습을 보며 이제 다문화가정이라는 작은 굴레를 벗어나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글로벌시대의 인재로 자라는 그들이 있기에 오늘도, 내일도 다문화가정을 위한 행복한 동행은 계속될 것입니다.

04



05



06



- 04 일본 화폐 구경하기
- 05 일본 평상복 입어보기
- 06 오키노미야끼 만들기 수업

다 함께 소통하는 다문화교육



양 순 구
진주 봉곡초등학교 교장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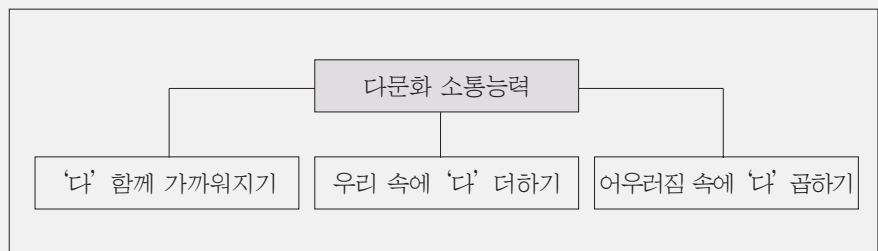
1. 들어가며

십 수년 전만 하더라도 거리에서 외국인을 만나면 신기한 마음에 힐끗힐끗 곁눈질을 하기도 하고 스친 후에도 화제가 되었다. 나와 생긴 모습, 피부색, 언어가 다른 존재에 대한 호기심과 낯섬에 대한 이질감이 함께 하는 것이다. 요즘은 외국인을 만나는 것이 일상이 될 정도로 가까워졌으며, 우리 사회의 오늘을 대변하는 ‘다문화’라는 말은 더 이상 낯설지도 새롭지도 않다. 이러한 사회 변화에 맞추어 우리 속에서 다문화를 배우고 이해하여 익히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나아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이루어진 다문화사회에 적응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소통능력은 필수조건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발맞추어 본교에서는 다문화사회 소통능력 신장을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어 그 활동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02



2. 다문화사회 소통능력¹⁾ 신장을 위한 노력



01 다문화 가정 방문

02 다문화 도서

가. '다' 함께 가까워지기(수용)

다 함께 가까워지는 노력은 다문화가정 학생과 다문화사회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데서 출발한다. 다문화가정 학생과 가까워지기 위해 담임교사가 다문화가정

1) 소통은 어떠한 것이 막히지 않고 잘 통한다는 뜻으로, 소통능력은 서로 오해 없이 뜻이 통하는 능력, 즉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말이 통하고 문화적 의도가 잘 전달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므로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소통을 포함한다.

을 직접 방문하여 가정환경을 조사하고 학부모와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학생의 학습 발달과 교우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교과학습 진단평가 결과를 분석한 학력실태를 함께 정리하여 학생관리카드를 작성하였으며, 다문화 가정 학생과 담임교사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1:1 결연을 맺어 ‘내 선생님’과의 대화 시간을 마련하였다. 또한 학급활동(정규수업시간, 교우관계 등)에 대한 파트너로 또래친구 ‘마니또’를 선정하여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사들에게는 다문화 관련 직무연수를 지원하였고, 일반학생들에게는 다문화 관련 도서를 구입하여 다문화에 대해 쉽게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학부모들을 위해서는 다문화사회 이해와 구성원 간의 역할에 대한 외부강사 초청강연을 실시하였다.

나. 우리 속으로 ‘다’ 더하기(이해)

학교교육과정 속에 다문화교육을 더하기 위해, 학년별로 나누어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초등학교에서 지도해야 할 기본적인 다문화교육과정요소를 추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교육 교수·학습 과정안을 작성하여 교과지도 시간에 수업을 실시하였으며, 학부모 공개수업 및 동료 수업장학 시에 다문화 이해수업을 진행하여 학부모의 다문화 이해와 자연스럽게 연결하였다.

또한 학년별로 1학년-세계의 국기, 2학년-세계의 음식, 3학년-세계의 의상, 4학년-세계의 인사말, 5학년-세계의 축제, 6학년-세계의 문화재와 명승지 등 다문화 관련 주제를 정하여 집중탐구하게 하였다. 이 주제는 탐구 주제인 동시에 환경구성의 단초가 되어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다문화 요소를 더하는 역할을 하였다.

아침활동을 통한 다문화 관련 영상물 감상과 다문화 이야기 듣기 역시 일상 속에서 다문화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였다. 국가인권위원회 어린이청소년인권교실의 다양한 인권동화, 플래시 문예작품은 좋은 소재가 되었다.

다. 어우러짐 속에서 곱으로 ‘다’ 곱하기(시너지)

함께 잘 어울리기 위해서는 서로가 가진 격차를 줄이고,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쌓아가는 활동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방과후학교 수강권을 지원하고 진주교대 대학생 멘토링을 실시하여 학습 기회를 제공하였다. 여름방학을 통해 친구와 함께 2주에 걸쳐 모듬북을 배우고 한국문화체험학습을 다녀오면서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긍지를 갖게 하였으며, 이 모든 활동을 ‘다문화’라는 말을 빼고, 다문화가정 학생과 마니또 친구, 내 선생님이 함께 하여 진정한 의미의 어우러짐이 되었다.

매주 토요일에는 관내 결혼 이주 여성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주문화연구소와 연

03



04



03 모듬북 교실

04 한국문화체험

제한 한국어교실을 운영하였다. 한국어교실은 수준별로 진행되며 희망자는 누구나 수업을 들을 수 있으며 유아가 함께 와서 유아반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 보육의 부담없이 수강할 수 있었다. 월 1회의 요리교실을 통한 한국문화체험과 학기별 1회의 현장체험학습을 통한 한국사회체험 또한 귀중한 경험이 되었다. 지난 학기에 모두 54명의 결혼 이주여성과 이주 노동자가 수강신청을 하여 꾸준하게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3. 맺으며

우리를 둘러싼 사회는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문화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는가? '우리 안의 다름' 과 잘 소통하고 있는가? 아이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능력이 뛰어난데, 다문화 이해라는 용어를 가져오는 순간 아이들에게 또 다른 구분 짓기와 역차별을 제공하는 것은 아닐지, 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이 외국어학습이거나 지식위주로 편성된 단편적인 교육에 국한된 것은 아닐지하는 반성을 게을리 하지 않으면서 다문화사회에서의 진정한 소통을 위해 오늘도 새로운 발걸음을 옮겨 본다.

05



06



05 한국어 교실 수업 모습 1

06 한국어 교실 수업 모습 2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 대안교실 운영을 통한 부적응 학생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



김 태 욱
창원 삼계중학교 교장

I. 운영의 취지

교육을 통해 행복한 사람을 만들자는 목표는 우리 학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이다. 하지만, 학교 내 교수·학습 활동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많은 것이 교육 현실이다. 이렇게 정상적인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걷도는 아이들은 교육현장에서 소외되기 마련이고, 그 결과 소외 감정을 폭력적 행동이나 친구 괴롭힘 등의 부정적 행동으로 표출하는 것이다.

본교는 통합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소재 중학교로 학급수가 40 학급이나 되는 대단위 학교이다. 그러나 학교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특별실은 말할 것도 없고 학생들의 휴식 공간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도서관이 유일한 학생들의 쉼터이자 공부방이다. 학교가 학생들의 다양한 취미와 적성, 정서를 담아낼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용 공간으로 만족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이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다. 실제로 학생과 학생, 교사와 학생 사이의 갈등 상황이 본교에서도 있다. 요즘 학생들은 순간적 감정 절제력이 부족하다. 인내심과 끈기가 부족한 디지털세대의 특성이 그대로 나타난다. 이러한 학생들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폭력적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본교에서는 이러한 학생들을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을 통해 학교생활에 소외됨이 없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학교 내 대안교실’이 학생의 행복을 찾아주는 소중한 교육이 되도록 운영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II. 운영의 목적

오늘날 학교 부적응의 문제는 심각하다. 언론의 보도를 접하면 학교 부적응 학생들이 집단화, 폭력화되면서 사회적인 문제까지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교는 언론 보도만큼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학교 부적응으로 학교에 흥미를 잃고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의 목적을 두었다.

1. 학교부적응 학생에게 적절한 프로그램을 투입하여 학교생활 적응력을 높인다.
2.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여 바른 인성을 함양한다.
3. 학교부적응 학생에게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게 한다.
4. 학교부적응 학생들이 건전한 청소년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생, 교사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든다.

01



02



01 등교지도 도우미 활동 모습

02 삼계원 봉사활동 모습

III. 운영의 실제

1. 운영 방법

가. 운영기간 : 2010.04.01 ~ 2011.02.28.

나. 운영대상 : 1~3학년 학생 중 담임교사가 선정한 학교부적응 성향이 보이는 학생 30명(학교폭력 가해자 포함)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교 내 대안교실’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도 대상으로 선정된 학생들은 처음엔 어색한 모양이었다. 그러나 같이 운동도 하고 지도 선생님들과 대화를 통한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운영의 취지를 이해하고 아이들 나름으로는 방침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였다.

2. 학생 조직

행복동행 팀(15명)은 학교부적응으로 인하여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문제해결능력이 부족한 학생을 중심으로 1~3학년 학생 중 담임교사의 자문을 구하여 선정하였다.

친구사랑 팀(15명)은 학교폭력을 행사한 경험이 있거나 친구를 괴롭히는 성향이 있는 학생을 1~3학년 학생 중 담임교사의 자문을 구하여 선정하였다.

3. 학교부적응 학생을 위한 학생 공감 체험교실 운영

가. 상담활동을 통한 학생문제 예방교실

일차적인 상담활동은 담임교사의 반별 상담누기기록부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1:1 상담교사(멘토)를 통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상담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멘토는 지혜와 신뢰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주는 지도자란 의미로 사용된다.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교수·학습활동에도 흥미가 없는 학생들에게 멘토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는 것은 학생들에게 바른 삶의 길을 열어주는 중요한 교육적 의미가 있었다.

나.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한 대안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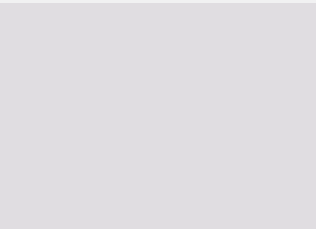
스포츠 활동을 통한 자아 존중감을 형성하였다. 특히, 축구는 행복동행 팀과 친구사랑 팀으로 편을 정하고 방과 후 학교 운동장에서 함께 하였다. 같이 땀을 흘리고, 서로 격려하는 동안 친구의 소중한과 무엇이든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운동을 마치고 학교 운동장 벤치에서 자장면 먹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먹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위해 자리를 양보하는 등 상대방을 배려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아름다운 미덕을 볼 수 있어 흐뭇하였다.

방학 중에는 함께 광려친 물놀이를 갔다. 졸업생도 만날 수 있었는데 아이들은 마냥 좋아하였다. 역시 학교부적응 학생들은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계기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물놀이를 마치고는 학교 근처까지 걸어와서는 분식집에 들러 국수와 파전을 먹었다. 삼삼오오 둘러 앉아 즐겁게 이야기꽃을 피우는 모습을 보니 새삼 대안교실에 대한 교육적 의미가 새로웠다. 단순히 ‘학교부적응학생=문제아’라는 도식에서 벗어나 그들의 열정과 에너지를 어떻게 승화해야 하나 하는 고민도 새로이 생겨났다.

2학기 중에는 장애인 복지관을 방문하여 장애체험을 할 예정이다. 매우 이기적



03



04

03 운동 후 함께 자장면!

04 방과후 축구하는 대안교실

이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보다는 폭력적인 학생들에게 장애체험을 해보게 하여 건강한 신체를 갖고 있다는 것이 소중함과 자신의 현실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깨닫게 하는 계기교육을 해보려 하고 있다. 아이들도 이미 복지단체(노인요양원) 봉사활동을 경험해보았기 때문에 그날을 기대하고 있다.

다. 봉사활동 참가를 통한 자아 존중감 높이기

6월 11일에는 삼계원(노인요양복지원)을 방문하여 노인들의 다리 주물러 드리기, 위문 노래 부르기, 말벗 되어드리기, 휠체어 밀어드리기, 식사 도와드리기, 화장실 청소하기, 복지원 주변 풀베기 등 보람된 시간을 보냈다.

한 학생은 참가 소감문에서 “나는 거기서 많은 것을 느꼈다. 단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며 타인을 배려하고 헌신하는 봉사활동의 참 의미를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봉사활동은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고 학교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기도 하다.

4.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친구사랑 대안교실 운영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친구와 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친구칭찬하기, 친구에게 사과의 문자메시지 보내기, 친구캐릭터 그리기, 친구사랑 사진 학급 홈페이지 올리기 등을 ‘친구사랑’ 행사와 연계하여 실시하였다. 친구가 단순한 마음편한 장난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발전적 관계로 나아가야 함을 알게 하는 시간이 되었다. 생각보다 아이들은 이 시간을 즐거워하였다.

학교폭력 학생 예방단 활동을 통한 친구사랑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학교폭력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아침 정문에서 학교폭력추방 띠를 가슴에 두르고 등교지도에 동참해보게 함으로써 수동적 입장에서 적극적인 학교폭력 예방단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 학교폭력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선생님들의 평가를 받았다. 학생들의 거친 태도도 많이 좋아져 ‘학교 내 대안교실’이 운영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운영의 결과

아직 ‘학교 내 대안교실’은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많은 변화가 보인다. 급우 간에 갈등 상황도 많이 줄어들었고, 교사의 지도에 다소 불손한 태도를 보였던 학생들도 상당히 공손하다. 실천적, 구체적 ‘학교 내 대안교실’의 운영을 통해 학교부적응 학생들이 학교에 흥미를 갖고 다니며, 학교가 고통스러운 곳이 아니라 행복한 곳이라는 사실을 체득하게 하고 있다. 운영의 결과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교사와 학생 사이의 상호이해와 신뢰관계 구축을 통해 학교 적응력을 높였다.
2. 학생들에게 자신의 기본 욕구를 이해·조절하게 하고 긍정적인 방법으로 충족시키는 방법을 깨닫게 하였다.
3. 대안 교실에 참가함으로써 가출이나 무단결석, 금품갈취, 폭력, 생활태도 등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05



06



05 광려천 즐거운 물놀이!

06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아름다운 도전, 그 이상의 가치를 바라보며



김 수 경
거제제일중학교 교사

온 땅이 타들어갈 듯 강렬한 태양이 이글거리는 한적한 바닷가 시골의 여름, 편안한 복장을 한 학생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교문을 들어선다. “선생님 안녕하세 요?” 꾸벅 인사하고 음악실에 들어선 아이들은 멀리서 걸어온 탓에 얼굴은 벌겍게 달아올라있고 옷은 땀에 달라붙어 연신 옷을 떼어내며 바람을 일으켜보지만 열기는 쉽사리 식지 않는다. 잘 익은 토마토빛 같은 얼굴에 생글생글 미소를 띤 아이들이 하나 둘 옹기종기 모이자 악기를 꺼내 연습을 시작한다.

‘솔라시솔 레-시 라-레-라 솔미시솔 피-’ 잔잔한 선율이 흐르자 짙은 초록빛 나무 그늘에서 연신 땀땀 거리던 매미도 소리를 죽이고 온 마을은 고요하게 우리 연주를 듣고 있다. 음표는 투명한 날개를 달고 훨훨 날아 반짝반짝 일렁이는 바닷물 위에 고운 가루 되어 흩뿌려져 리듬에 맞춰 사뿐사뿐 춤을 춘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학교, 이곳은 거제시 거제면 서정리에 자리잡고 있는 거제제일중학교다.

작년 우리 학교에 처음 온 날을 기억한다. 이런 시골에도 아이들이 사는구나……. 너무 조용해서 적막했던 등갓길, 맑은 공기를 마시며 운동장을 가로질렀다. 앞에 가는 학생에게 교무실이 어디 있냐고 물어본 뒤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런데 지나치는 학생들 입에서 나오는 모든 대화가 거칠다. 거의 욕설이다. 그게 우리학교 첫인상이었다.

첫인상은 수업에서도 이어졌다. 시골아이들이 더 순박하고 착할 것. 라는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고 생전 처음 본 아이들이 첫 수업부터 뼈뺌하게 앉아 도끼눈을 뜨고 대들기 시작했다. 수업시간에 돌아다니지를 않나, 화장실에서 숨어 라면을 먹고서는 당당히 늦게 들어오고, 칭찬을 했는데 기분 나쁘다며 뛰쳐나가버리고……. 휴게실과 상담실은 매시간 훈계하는 선생님과 혼나는 학생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하루가 평화롭게 지나가는 일이 없었다. 옆치락뒤치락 험난한 시간은 다음 해 졸업식이 되어서야 끝이 났다.

새 학기가 시작되었다. 새로 오신 체육선생님은 포스부터가 남다르셨다. 처음 뵈을 때 나도 완전 작아지는 느낌이었으니……. 교복이 있나 없나 할 정도로 마음대로 입었던 아이들이 이름표를 달고 단추를 끝까지 잡그기 시작했다. 운동장 조례 때 판짓하던 아이들이 열중쉬어 자세로 완벽하게 줄을 맞추어 선다. 그렇게 큰일이 아닌데도 먼저 “죄송합니다.”라며 고개를 숙인다. 예의를 갖추어 말하고 잘못을 시인한다. 정말 감격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었다. 잠시 학교에 일하러 오신 분께도 공손하게 인사를 한다. 이제는 대견하고 자랑스럽기까지 하다. 이렇게 사랑스럽게 변화된 아이들에게 좋은 선물을 해 주고 싶었다. 그리하여 거제제일중학교 합주부는 시작되었다.

오래 전 어떤 선생님의 유지로 우리학교에 장학금을 주셨다. 큰 대회에서 음악, 미술, 문학부문에서 상을 받은 아이들에게 주라는 것이었는데 이자만 붙고 있었다. 그 장학금이 형편이 어려운 우리 아이들에게 나누어졌으면 했다. 장학금 얘기에 전 교생의 1/4이나 되는 55명이 합주부에 지원했다. 그러나 우리 상황으로는 상을 받을 수 없었다. 학교에는 30년 된 피아노밖에 없었고, 아이들은 악기를 배워본 적이 없을뿐더러 악보도 잘 읽지 못했다. 그때부터 험난한 과정은 시작되었다. 학교에는 합주부에 주어진 예산이 없었고, 음악과 예산도 터무니없이 적었기 때문에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이란 곳은 다 알아보기 시작했다. 여기저기 알아보다 겨우 근처 초등학교에서 알토, 테너, 베이스 리코더를 몇 대 빌릴 수 있었다. 몇 대 되지 않는 악기였기 때문에 리코더 합주는 할 수 없어 오카리나, 킴플룻, 차임벨을 상담실에서 빌렸다. 악기를 갖추고 곡을 편곡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아이들은 아직 부족하다며 무리한 연습일정에도 잘 따라주었고 악기를 잘 다루는 아이들은 파트별로 가르쳐주기도 하는 모습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땀 수밖에 없었다. 시대회는 6월 중순인데 5월이 넘어서야 악기가 갖추어져서 연습은 아침, 오후 연습, 놀토, 주말까지 계속되었다.

6월 19일, 우리는 ‘언제나 몇 번이라도’, ‘젓가락 행진곡’으로 거제시 중등학생 종합학예발표대회에서 합주부문 최우수를 받았다. 최우수를 받았다는 말에 아이들은 믿을 수가 없다면서 펄쩍펄쩍 뛰며 좋아했다. 그러나 나는 도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야 더 많은 장학금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다.

그러나 여름이 되고 연습이 힘들어지기 시작했다. 방학이 되어 아이들은 휴가며 학원 때문에,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행사가 많아 함께 연습하기가 힘들었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고 내 마음은 급해졌다. 잘 맞지 않으면 야단도 치고 조금이

라도 떠들면 소리도 질렀다.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 속상한 소리를 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이들은 나를 위로해 주었다. 상이나 장학금을 받지 않아도 괜찮다고,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얻었다며 정성스럽게 감사편지를 써서 나를 부끄럽게 했다. 한푼 두푼 모은 용돈으로 시원한 음료수를 사서 올려놓고, 힘 내시라며 깜짝 이벤트로 UCC를 만들어 격한 감동을 주기도 했다. 마지막 연습 날, 아이들과 함께 기도를 하다 눈물이 터졌다. 아이들의 열심과 사랑이 정말 고마웠고, 우리학교에 8월 말까지만 있어야 해서 너무 미안하기도 했다. 눈물로 서로를 축복하며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잊지 못할 시간이었다.

드디어 8월 19일 도대회. 첫 곡을 지휘하다 갑자기 콧잔등이 찢해졌다. 40명의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눈을 맞추다 보니 형편 어렵지 않은 아이들이 없고, 가정 문제로 상처 난 아이들도 너무 많은데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기까지 왔구나 생각하니 참 가슴 아프게 고맙고 사랑스러웠다. 복받치는 감정을 누르느라 힘들었다. 눈치를 챘는지 아이들이 눈으로 힘을 실어주었다. 두 곡이 끝나고 공손하게 인사하고 내려왔다. 이쁘게 인사하는 모습까지 사랑스러웠다.

결과는 장려였다. 우리의 땀과 눈물에는 못 미치는 결과여서 나는 너무 속상했다. 그러나 아이들은 장려상을 받아서 정말 기쁘다고, 정말 자랑스럽다하며 지도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와 편지를 주었다. 낮이 뜨거웠다. 오히려 내가 배우고 있었다. 이런 아이들의 도전은 이제부터구나 생각하니 참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었다. 앞으로 빌린 악기도 돌려주어야 하고, 나도 조만간 떠나야 해서 합주부의 미래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아이들은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법을 스스로 배웠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

우리 학교에 있는 동안 한 사람 노력의 중요성과 ‘값지다’에 대한 정의를 온 몸으로 느꼈다. 교육은 이렇게 값진 것이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일. 그 교육은 교사인 내가 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아이들이 나를 힘차게 지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었고 많은 것을 깨닫도록 변화시켜주었고 성장시켜주었다. 우리 거제 제일중학교 아이들의 삶 가운데 내가 와서 함께 있을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오늘도 보석 같은 바다의 반짝임을 창문에 걸어놓은 어느 시골 세상 가장 행복한 학교 음악실에서는 보석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아이들이 있는 힘을 다해 목청껏 노래 부르고 있다.



청와대 푸른기자단으로 장목호 승선택험을 다녀와서



박 준 혁

창원 양덕초등학교

청와대 푸른누리 기자들을 대상으로 국토해양부와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주관하는 현장 체험 프로그램 장목호 승선택험에 참가할 기자 선발 공지사항이 떴다. 경남 거제에서 하는 행사라 꼭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편집실에 글을 올리고 가슴을 조이며 선발 명단을 손꼽아 기다렸다. 6월 4일 청와대 푸른누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명단을 확인하는 순간 내 이름이 눈에 속 들어왔다. 그 순간의 기쁨이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드디어 19일 거제로 출발하는 아침이 밝았다. 기분이 들떠 잠을 설치고 일찍 눈을 떴다. 경남에 장마가 시작되어 비가 많이 올까 걱정하였는데 하늘도 나의 기분을 알고 있는지 빗방울은 떨어지지 않았다.

푸른누리 기자가 되기까지 옆에서 함께 해주신 우리 학교 과학전담 손득춘 선생님과 함께 거제 남해해양연구원으로 출발하였다. 10시 10분쯤에 도착하니 선착장에는 온누리호, 이어도호, 장목호가 모두 정박해 있었다. 1년에 열흘 정도밖에 함께 하지 않는다는데 우리가 운이 좋은 것인지 우리나라 해양탐사선을 모두 함께 볼 수 있었다.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기자들은 장목호에 승선택하여 2시간 정도 바다에 나가고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은 온누리호와 이어도호를 견학 하신다고 하였다. 장목호에 승선택하여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바다로 출발하였다. 배멀미를 하지 않을까 염려하였는데 그런 걱정은 끝……. 해양연구원 선생님께서 장목호에 대한 설명을 꼼꼼히 잘해주셔서 거기에 정신이 팔려 다른 것은 생각할 수가 없었다.

장목호는 2005년 한국 연안 해역에서의 해양특성을 연구하기 위한 40톤급 탐사선으로 장목면에 위치한 남해연구소 부두에서 '장목호'의 명명 및 취항식으로 태어났다고 하였다. 총29억원의 국가예산으로 선박의 규모는 총톤수 41톤, 속력이 20노트, 연속항해거리는 380마일, 최대 승선인원은 연구원을 합쳐 15명이라고 하였다. 장목호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나라 연안 해역에서 다양한 해양 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하셨다. 최근 천안함 사건 조사에 큰 기여를 하고 돌아왔다고 한다. 더불어 해양 탐사선 온누리호에 대한 지식도 얻게 되었다.

온누리호는 종합해양 탐사선으로 탐사선이 하는 일은 심해저 지형과 수온, 염분, 수석, 해류, 천부지층 관측 등을 조사하고 자유 낙하식 채취기와 심해카메라를 내려보내 해저 자원을 탐사한다고 하셨다. 장목호 승선 체험을 마치고 온누리호 식당에서 충무김밥과 피자를 먹고 국토 해양 랜드마크 현장체험 참가 확인증을 받고 오늘 승선 체험 설문지를 작성한 후 모든 프로그램을 마쳤다. 함께 해주신 해양연구원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돌아오는데 몸은 많이 피곤하였지만 가슴 깊이 뿌듯함을 느끼며 오늘의 2시간이 나에게 정말 유익하고 내가 앞으로 진로를 결정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

“청와대 기자님을 모시고 다니니까 운전도 조심스럽구나.”라고 농담을 하시며 격려해주시는 존경하는 손득춘 선생님께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을 전하며 내가 어른이 되면 꼭 선생님을 모시고 다시 한 번 남해해양연구원을 방문하리라 다짐해 본다. 푸른누리 기자로서 취재 활동을 열심히 하여 다음에 다른 체험 프로그램에도 꼭 참여하고 싶다.



정의란 무엇인가? -Justice



김미숙

창녕 길곡초등학교 교감

‘정의’라 하면 내게 바로 떠오르는 이미지 하나가 있다. 전국 경찰서 입구마다 걸려있던, 제5공화국의 국정슬로건이었던 ‘정의를사회구현’ 간판과 머리가 흰하게 빛났던 당시 대통령의 복합된 인상이 그것이니 내게 ‘정의’라는 단어는 약간 왜곡되고 우스꽝스럽게 낙인이 된 셈이다.

신문에 처음 나온 이 ‘정의란 무엇인가?’ 책 광고를 보고는 딱딱한 정치이념관계 서적이러니 하고 그다지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의외로 이 무겁고 심각해 보이는 책이 우리나라 서점계의 돌풍을 일으켜 단번에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했다는 신문 기사를 보고 호기심이 동해 사서 읽어보았다. 책 표지의 사진이 참 인상적이다. 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극장식 강의실을 가득 메운 학생들과 연단위에 선 저자의 뒷모습 - 강의실의 뜨거운 열기와 진지함이 그대로 느껴진다. 저자인 마이클 샌델은 미국 하버드대의 정치철학 교수로 그의 강의는 20여 년간 하버드대에서 최고의 명강의로 손꼽히고 있다고 한다.

이 책에는 수많은 흥미롭고 논쟁거리가 되는 사건이 가득하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나 가상의 예를 들어 우리가 막연히 생각해 온 정의에 끈질기게 반론을 제기하며 독자를 딜레마에 빠뜨리고 정의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그런 다음 다양한 문제에 일관되게 적용할 정의의 원칙을 찾도록 유도한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1884년 영국선원 네 명-선장, 항해사, 일반선원, 잡무를 보던 고아소년-이 작은 구멍보트에 탄 채 남대서양을 표류했다. 그들은 먹을 것이 떨어져 고통스럽게 보내다가 마침내 병이 나서 누운 고아소년을 죽이고 세 남자는 그 아이의 살과 피로 연명하였다. 나중에 구조되어 재판을 받았는데 어린 소년을 죽인 사실을 순순히 자백했고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누군가를 죽여 먹지 않으면 네 사람 모두 죽을 판이다. 나약하고 병에 걸린 그 소년이 적절한 후보였다. 어쨌거나 곧 죽을 거니까 그리고 그 소년은 부양가족이 없었다. - 당신이 판사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겠는가? 혹은 당신

향기나는 서가 ●●●

이 구명보트에 있었다라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인가?

그밖에 불임부부와 대리모의 계약, 아프가니스탄 파병군의 징병제와 자원제, 안락사, 장기매매, 먹고 먹히기로 합의한 식인(食人) 사건, 형제애를 선택한 살인범 벌제형제와 공공의 정의를 택한 유나바마 형제이야기, 동성혼인, 아프가니스탄 염소치기 첩자사건 등 우리를 딜레마에 빠뜨리고 우리가 정의라고 생각하는 상식적인 판단을 의심하게 하는 사건들을 무수히 예로 들었다.

이런 많은 예를 통해서 우리가 정의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며 행동하는 원칙을 저자는 세 가지로 정리하였는데 저자인 마이클 샌델이 지지하는 원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기반을 둔 ‘정의란 미덕을 키우고 좋은 삶의 의미를 함께 고민하여 공동선(共同善)을 실현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필자도 공공선을 추구하는 정의의 원칙에 심정적으로 마음이 끌린다.

깊이있게 세 가지 정의를 규정하는 방식의 철학적인 이론을 다 이해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 책이 우리사회에서 세대를 막론하고 인기를 끄는 이유도 많은 사람들이 이 정의에 목말라하고 우리 사회에 정의가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데에서 기인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70~80년대 고도성장사회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나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성공하고 출세하며, 부자가 되는 신분상승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최근의 사회경제적 불안과 변동은 이런 생각이 허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였다. 청년층의 실업률 증가, 높아가는 사회계층간의 장벽, 부익부 빈익빈의 순환 등은 젊은이들 뿐 아니라 일반서민층에게도 희망을 빼앗고 과연 ‘우리의 삶이 정의로운가?’ 하는 회의를 준다. 이런 와중에 정의(正義, Justice)의 정의(定意, Definition)를 분석하고 갈파하며 ‘공동체 정의’를 주장하는 지은이의 주장이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얼마 전에 미국의 억만장자 40여 명이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이 주도하는 ‘기부약속(The Giving Pledge)’운동-자신의 재산 절반 이상을 죽기 전이나 후에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약속-에 동참하기로 하였다는 신선한 소식이 세계를 놀라게 했다. 투자의 현인이자 귀재인 워렌 버핏은 이미 재산의 99%를 기증하기로 약속했다. 그는 말하기를 ‘나를 위해서 내 재산의 1%를 소비하든 그 이상을 소비하든 나의 행복의 질은 변화가 없으나 나머지 99%를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것은 그들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했다. 바로 이런 분들이 이 책의 저자인 마이클 샌델 교수가 주장하는 ‘좋은 삶의 의미를 고민하고 함께 공동체 선(善)을 가꾸어 사람이 살만한 공동선이 실현된 사회’를 몸소 실천하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 사람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는 더 건강해지고 인생은 살만하다는 의욕과 희망을 갖게 해 주지 않을까?

전에는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법학도의 책에서나 발견하리라 짐작했던 ‘정의’라는 단어가 새삼 내 생활 가까운 문제로 여겨지며 ‘정의사회의 구현’이라는 표어가 새로운 시각과 비중으로 다가오는 뜨거운 여름이다.



엔니오 모리꼬네의 ‘Nella Fantasia’



김 정 민
창원 소담초등학교 교사

폭염이 연일 지속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피서를 위해 남들처럼 고속도로의 차량 행렬에 묻혀 인산인해가 되는 산이나 계곡, 바다를 찾아 아이들을 데리고 관박이 행사를 한다.

하지만, 나는 나만의 피서를 즐긴다. 다음 학기 우리 반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연수를 찾아내어 연수 장소에서 틀어주는 에어컨 밑에서 열심히 듣거나 집에서 안방피서를 즐긴다. 안방피서라 해서 에어컨 도수를 잔뜩 아래로 내려놓는다는 얘기가 아니다.

피서를 위해 떠나간 비어있는 도심 한 가운데에서 창밖에서 시원하게 울음 우는 매미소리를 노래삼아 집안 거실에서 자연바람을 쐬며, 읽고 싶었던 책을 손에 쥐고 있으면 몸도 마음도 상쾌해진다.

나는 이번 방학에 안방 피서를 즐기면서 책 한 권을 본 것 외에 별도의 큰 소득 하나를 얻게 되었다. 일요일 오후, 나른하여 TV를 켜 순간 박칼린 교수가 오디션에 합격한 단원들에게 합창을 연습시키는 모습을 보았다.

창원교사합창 단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합창 스튜디오 하면서, 우리 학교 어린이 합창단을 지휘를 하고 있어 유심히 그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다.

예능 프로그램인 KBS 2TV '남자의 자격 합창단'-죽기 전에 해야 할 101가지-였다. 아내에게 물어보니 2010년 9월에 개최되는 거제합창대회 참가 오디션에 단원들을 뽑아서 대회에 참가한다는 것이었다.

박칼린 교수가 화성에 대해 단원에게 설명을 한 다음, 합창대회에 곡 중 하나로 '넬라 판타지아'를 단원에게 들려주었다. 전주가 흐르는 동안 단원들의 얼굴 표정이 아주 편안하고 선하게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나도 노래를 듣는 순간,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주인공 앤디가 방송실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LP판을 돌렸던 노래 -피가로의 결혼-을 들었을 때의 그 감동에 버금가는 감동을 받게 되었다.

'베토편 바이러스'에서 유명세를 탔던 곡이라 선율은 알고 있었지만, 합창곡으로 편곡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었다. 나도 남자의 자격 합창 단원들처럼 눈을 감고 단원이 된 듯 감상을 했다. 눈을 감고 들어보니 멜로디가 애잔하면서도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한 사라브라이트만의 맑은 음성이 하늘에서 천사가 들려주는 듯한 목소리로 내게 다가왔다. 온몸에 짜릿한 전율이 흐르고, 모든 근심과 걱정을 사라지게 해주는 듯한 평온한 마음이 들게 하였다.

음악 이야기 ●●●

프로그램이 끝난 후 'Nella Fantasia'를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다. 'Nella Fantasia'는 '내 환상 속으로'라는 뜻이며, 일디보, 캐슬린 쟈킨스, 러셀 왓슨, 켈틱우먼 등 여러 클래식 크로스오버 가수들과 수많은 뮤지션들이 이 노래를 불렀다고 되어 있었다.

작곡은 이탈리아 출신으로 영화 음악의 거장인 엔니오 모리코네(Ennio Morricone)가 하였으며, 작사는 키아라 페르라우(Chiara Ferrau)가 하였다. 모리코네는 1986년에 개봉된 카톨릭 선교 실화 영화 'The Mission'의 OST로서 'Gabriel's oboe(가브리엘의 오보에)'를 작곡 하여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한다.

박칼린 교수는 음악이 흐르고 난 뒤, 브라이트만(Sarah Brightman)이라는 Poper 가수가 부른 노래라고 소개했고, '위낙 이쁜 곡이라 망가져봐야 얼마나 망가지겠나 싶어 결정했다'라고 했다. 박칼린 교수도 인정하 예쁜 곡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창원 교사합창단에서도 한번 시도 해볼 만한 곡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곡에 대한 애착이 더했다.

인터넷에 이 곡에 대한 사라브라이트만의 특별한 에피소드도 아래처럼 소개되어 있었다.

“다음 곡은 작곡자인 엔니오 모리코네(Ennio Morricone)가 영화 미션(Mission)에 삽입곡으로 썼던 기악곡입니다. 그러나 3년 전 저는 이 곡을 노래로 부르고 싶어 모리코네 씨에게 허락해 달라고 그 분에게 편지를 보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그 뒤로는 저의 간절한 마음을 알 때까지 매 두 달에 한번씩 부탁의 편지를 썼고, 결국 노래로 만드는 것을 허락 해 줄 것을 간곡히 청했습니다. 저의 간청에 마지못해 그 분은 허락해 주었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이 노래를 부르게 되어 너무 기쁘고 또 그분의 허락에 다시한 번 감사드립니다. 노래로 불러도 손색없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넬라 판타지아'를 들어 보시겠습니까?

-노래 부르기 전에 사라 브라이트만(Sarah Brightman)이 청중에게 설명한 소개말-

사라 브라이트만(Sarah Brightman)의 곡에 대한 사랑이 클래식 곡이 아니면서도 클래식 음악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유명한 곡이 되었고, 많은 클래식 크로스 오버 가수들과 뮤지션들이 부를 수 있는 곡으로 되살아난듯 하다.

그리고 이 곡은 합창단 등 많은 부분에서 편곡이 되어 불리지면서 명곡의 반열에 올라섰으며, 공연 시 많은 갈채를 받는 곡이 되었다고 한다.

나는 서정성을 겸비한 시나 노래를 좋아한다. 그래서 이 노래를 듣자 부모로부터 처음 선물을 받아 든 아이의 심정이 되어 내 핸드폰의 벨소리를 'Nella Fantasia'로 대뜸 바꾸어 버렸다.

이 음악은 나에게 마치 해거름의 실바람처럼, 수은등 사이로 훑날리는 꽃보라처럼, 윈두 커피향 같은 진한 감동과 감흥으로 내 가슴에 다가와 일렁거렸다.

음악의 감동이 내 마음에 잔잔한 물결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기뻐하는 마음으로 계속될 것 같았다. 바깥 피서를 갔더라면 육체적으로 잠시의 시원함을 느꼈겠지만, 나는 안방피서에서 정서적 풍만함을 얻었다.

지 상 갤 러 리

작품명 : 정원/20호/2010년



이 외 선

- 현) 창원 토월초등학교 교사
- 현) 한국미협, 창원미협, 경수협, 초등미술교과연구회, 시나브로 화원
- 저서 : 마누라와 신에 간다(지재원, 이외선 공저 / 대경북스 / 2010년 2월 발행)
- 경남교원예능대회 1등급(2003년)외 공모전 다수 수상

초등학교 취학 이렇게.....

◆ 초등학교 취학연령 기준

매년 10월 1일 현재,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

◆ 초등학교 취학 절차 및 흐름도

